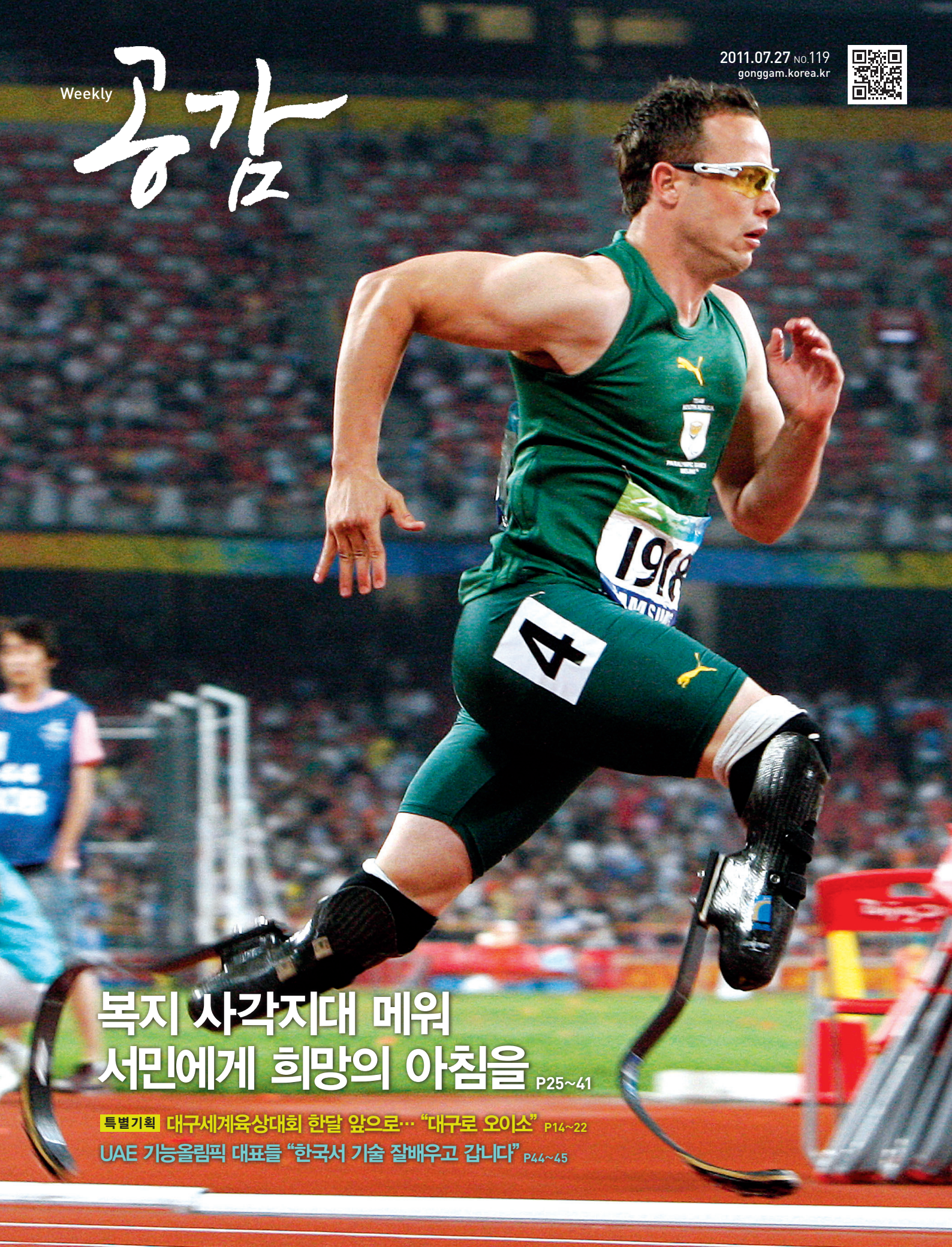
Weekly
공감
2011.07.27 NO.119
gonggam.korea.kr
복지 사각지대 메워
서민에게 희망의 아침을 P25~41
특별기획 대구세계육상대회 한달 앞으로… "대구로 오이소" P14~22
UAE 기능올림픽 대표들 "한국서 기술 잘배우고 갑니다" P44~45

IAAF World Championships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 8. 27 ~ 9. 4 대구스타디움 www.daegu2011.org

대한민국 대구에서
전세계 65억 인구의 감동이 시작됩니다!

● 입장권 구매(예매)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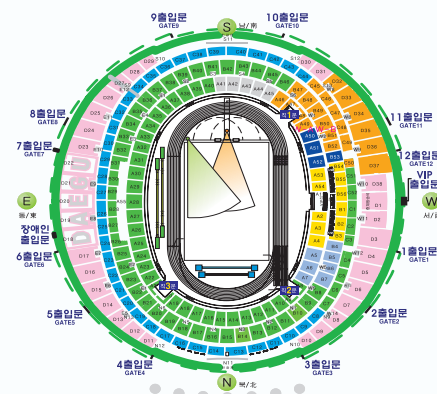
- 인터넷 : 인터파크(sports.interpark.com/1544-1555), 조직위(www.daegu2011.org/053-803-9264)
- 직접 판매처 : 대구은행 전국 각지점, 대구시청 및 구 · 군청 민원실, GS25편의점(ATM기 설치업소)

● 입장권 가격

(단위 : 원)

구 분	프리미어		A석	B석	C석	비 고
	F석	S석				
개회식 입장권	150,000	120,000	50,000	40,000	20,000	첫날 저녁경기 포함
오 전 입 장 권	30,000	30,000	20,000	10,000	–	
저 녁 입 장 권	100,000	80,000	40,000	20,000	–	
일 일 입 장 권	125,000	105,000	55,000	25,000	–	
시 즌 입 장 권	850,000	700,000	300,000	200,000	–	전경기 입장

※ 조기예매(2011. 3. 31까지) 10%, 어린이(12세이하) 30%, 장애 · 경로 · 국가유공자 50%, 단체(50명이상) 30% 할인, 꿈나무 및 대학생 프로그램(초·중·고, 대학교)참여학교는 별도할인 단, 개회식, 프리미어석, 시즌석 입장권은 할인 되지 않으며, 중복할인 불가

● 입장권 좌석 배치도

구 분	좌석등급	
(노랑)	VVIP석, VIP석	
(주황)	미디어석	
(회색)	선수석	
(진청)	프리미어	F석
(연청)		S석
(초록)	A석	
(하늘)	B석	
(분홍)	C석	

F : 결승선 S : 출발선 ※ C석은 개회식에만 해당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국제육상경기연맹 공식파트너

피부에 와 닿는 서민복지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전셋값은 계속 올라 변변한 주거생활을 누리기도 힘들다. 대규모 실업자의 발생과 빈곤층의 증가는 이미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에서 확인된 바 있다.

외환위기는 40여 년간 압축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치중한 나머지 그동안 관심 밖이던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구빈기능이 향상되었으며, 그 후 산재보험·고용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도 20퍼센트 수준에서 30퍼센트 중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GDP의 10퍼센트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사회위험 요소인 비정규직의 확산에 의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은 빈곤, 노동능력 상실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과 함께 2008년 9월에 터진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특단의 서민복지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최근 새롭게 발생한 생활이 어려운 서민 계층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서민층은 대체로 두 유형이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에 일자리가 있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경우와 자영업자 중에서 문을 닫거나 영세 자영업자로 쇠락한 경우가 그것이다.

서민복지는 경제·노동·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자리를 찾아 주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에는 일자리를 찾을 한시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서민복지는 경제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실업자,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1차 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확대, 2차 안전망으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실업부조제 도입, 그리고 최종 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 주거나 만들어 주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에는 일자리를 찾아 주고 만들어 줄 때까지 한시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 의료, 고용, 교육, 문화 등에 걸쳐 폭넓은 전통적인 돌봄 생활지원망을 국가의 공공책임하에 구축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G

Contents

NO.119 2011.07.27 통권 220호

일러스트·이철원

기획특집

한땀 한땀! 그물망 서민복지로

복지가 향하는 곳은 본래부터 서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것이 복지입니다. 정부는 서민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넓히고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지 이야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사상 처음 비장애 선수들과 경쟁하게 된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선수(남아공). 피스토리우스는 7월 19일 출전자격을 획득,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당시 경기 모습. 사진·AP연합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7.2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10

14

56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4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4대강 이상 무' 주민들 목소리에 안심

"4년 만의 물폭탄으로 강 주변 지역에 홍수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던 중 4대강살리기 준설효과에 대한 기사로 현장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이번처럼 큰 장마에도 준설로 인해 홍수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완료 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이 대통령, 진심 어린 봉사활동 인상적

"포커스 '나눔과 봉사로 외교 새 지평 열다'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빈민촌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소독과 외벽 작업을 하시는 대통령 내외의 진심 어린 봉사활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차기 사진, "내가 완전 십장이다, 십장!"이라는 농담을 하시는 모습은 정말 정겹고 인간미가 넘쳐 보는 내내 흐뭇했습니다. 저 또한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됐습니다."

황경호 (대전시 서구 도안동)

새터민의 적응을 도와줍시다!

"기획특집 '새터민에게도 일자리 나눔'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새터민 분들이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음주와 도박에 심취하거나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곤 합니다. 평생직장을 통한 생활의 안정을 통해 심리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만큼 그들을 위한 좋은 방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꼭 필요한 인재라는 자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욱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동계올림픽 준비, 머리를 맞대야 할 때

"'정치적 논란 유감… 혼과 열을 쏟아야'를 읽고 세 번이나 도전하여 얻은 소중한 기회를 이제는 어떻게 잘 치러야 할지 서로 머리를 모아 다양한 노력과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대회를 치러 우리의 국위를 선양하고, 보다 만방에 우리나라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스포츠 제전만큼은 화합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남이 (부산시 북구 괘법동)

휴대전화 잠금벨트를 꼭 채웁시다!

"지난호 글로벌 에티켓 만화 '안전벨트 3종 세트'는 단 3컷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특히 '운전자 휴대전화도 잠금벨트를 꼭 착용해 주세요'라는 마지막 문구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자칫 귀중한 목숨과도 연관되는 일인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꼭 지켰으면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휴대전화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온통 통화 중입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전화 에티켓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미라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이 기사, 아쉬워요

"새터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새터민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요즘 새터민에게 일자리 나눔을 하는 기업 '메자닌아이팩'에 대한 기사가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결코 순탄치 않았을 새터민의 국내 정착 과정에 대해 기사로 함께 다뤄주셨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새터민을 주축으로 하는 다른 기업들의 정보도 실렸다면 새터민들에게 도움이 됐을 듯합니다. **김수현 (회사원, 부산시 중구 보수동)**

"안내해 준 온라인 정보, 찾기가 어려워요"

'고지혈증 약 복용시간, 그때그때 달라요'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기사에서 안내한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온라인 복약정보방' 자료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지혈증에 관한 기사라 어르신 분들께 많이 필요할 텐데, 그분들께서는 찾기가 더욱 어려우셨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정혜윤 (중학생,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도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퀴즈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마스코트인 살비(SARBI)는 충성심이 강하고 영민한 한국의 토종개인 ○○○(천연기념물 제368호)를 소재로 개발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마라톤은 육상경기의 달리기 종목 중 최장거리인 경주입니다. 이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에는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지영준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렇다면 마라톤의 경주거리는 얼마일까요?

3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자메이카 출신의 이 육상선수는 현재 남자 1백미터 9초58, 2백미터 19초19라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번개같이 빠르다고 해서 '라이트닝 볼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선수의 이름은?

퀴즈 정답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8월 4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알립니다

4대강 심벌마크를 공모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국민 참여 4대강 심벌마크 공모전을 실시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 '행복4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이미지를 상징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공모 기간 | 8월 5일까지
공모 주제 | 4대강살리기 사업 행복4강의 이미지를 상징화한 로고 및 디자인
응모 방법 | 4대강 공모전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 후 우편으로 작품 접수
지원 혜택 | 국토해양부장관상 외 상금 수여
4대강 공모전 운영사무국 www.contest4rivers.co.kr ☎ 02-525-2648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조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8월 2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는 국책사업이죠.
4.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요즘 한류 OO들의 인기가 대단하다."
5.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림.
7. 역무원이 없고, 일부 기차가 정차만 하는, 작은 역.
8. 일부러 애써. "네가 원한다면 OOO 말리지는 않겠다."

세로

1. 절에서 머물면서 예불, 참선 등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명상과 휴식을 취하죠. 외국인도 많이 참가한답니다.
2. 새침한 성격을 지닌 사람. OOOO 아가씨.
3. '금시(今時)'의 준말. "폭우에 계곡물이 OO 불어났다."
6.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도시. 2백12개국 선수와 임원 3천5백여 명이 참가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열전을 펼치게 되죠. www.daegu2011.org
7. 관계하여 참견함.

〈Weekly 공감〉 117호(7월 13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유치 **2** 승리 **3** 경기장 **4** 지사 **5** 구성
세로 **1** 유리 **2** 승승장구 **3** 경사 **4** 지평 **6** 성원

〈Weekly 공감〉 117호 '공감 퍼즐' 당첨자
손유랑 · 충남 서산시 동문동
손은영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정찬기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조영빈 · 서울시 성북구 길음1동
최상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유치 발표 당시의 사진을 보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우린 동지… 팀워크 좋아 평창올림픽 유치"

이명박 대통령, 7월 18일 유치 유공자 격려 만찬… 다음 날 5부 요인 초청 오찬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유공자들과 만찬을 같이했다. 이튿날에는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시설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 참가자 및 유치 공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두 동지 같다"면서 반가움을 표시한 후 "한분 한분 다 애를 쓰셨다. 애쓰신 분들 힘이 다 모아져서, 단합이 잘되고 팀워크가 좋아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가능했다. 그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다 못 불러 미안해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안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성 KOC(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우리 직원들이 받고 가짜 아닌가 (했다)"고 받자 웃음이 터졌다.

조양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은 "많은 분이 열심히 뛰어 주고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어서 가능했다"면서 "만루홈런을 친 것 같았다"고 유치 성공의 감격을 되새겼다. 조 위원장은 "마지

1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9일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희태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부터) 등과 상춘재 뜰을 걷고 있다.

2 더반 IOC 총회 프레젠테이션을 빛낸 '더반의 여왕'들이 청와대에서 만났다. 김연아 선수와 나승연 평창유치위 대변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막에 더반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신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전 지역에 현수막이 붙었다. (대통령께서) 한번 다녀가시라"고 권했고, 이 대통령도 "한번 가야겠네요"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고, 이후에 시설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게 활용되어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어 동북아(동계) 스포츠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면서 "그것까지 생각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시설은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에 활용"

이날 만찬에는 이건희·문대성 IOC 위원,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박용성 KOC 위원장, 김진선 특임대사,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석용 KPC(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나승연 유치위 대변인, 김연아 홍보대사 등 더반 IOC 총회 PT 대표단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오지철 유치위 부위원장, 하도봉 유치위 사무총장,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남아공 더반 IOC 총회를 앞두고 열린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했던 재미동포 스키선수 토비 도슨은 미국으로 돌아가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7월 19일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府)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세네갈 IOC 위원이 "프랑스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조언을 하겠다. (한국이) 아시아 IOC 위원들의 표를 얻지 못하면 또 다시 2차 투표에서 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지지표명이 결정적 계기였다. 일본의 지지도 도움이 됐다. 투표 전날 오후에 아시아 IOC 위원들이 모여 이번에는 하나로 가자는 결의를 했다고 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도 관광명소로 만들어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5부 요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큰 계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김황식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결정적인 계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 "우리 국민이 아직 육상경기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지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육상에 대한 인식도 확 바뀔 것"이라면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처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배진영 기자

지난 7월 19일부터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된 조선 왕실 외규장각 의궤를 관람객이 살펴보고 있다.

외규장각 의궤, 문화재 환수의 '시발점'

국립중앙박물관서 9월 18일까지 일반공개… 문화재 환수 포럼 · 토론회도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약탈됐다 1백45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조선 왕실 외규장각 의궤가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의궤는 조선 기록문화의 정수다. 문화재청은 외규장각 의궤의 일반 전시와 함께 14만여 점에 달하는 국외 문화재 환수에도 본격 나섰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됐던 외규장각 의궤는 조선 왕조의 통치철학과 운영체계를 보여주는 중요 기록물이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지난 1백45년 동안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문서수장고에서 긴 잠을 자야만 했다.

외규장각 의궤가 지난 7월 19일부터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됐다.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통해서다. 1991년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 의궤 반환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 모습을 일반에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번에 일반에 공개된 외규장각 의궤는 대부분 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한 어람용(御覽用)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국내외에 한 점밖에 없는 유일본도 상당수 포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9월 18일까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에서 〈풍정도감의궤〉 등 71점의 외규장각 의궤와 의궤의 입체적 이해를 돕는 〈강화부 궁전도〉 등 총 1백65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3D영상으로 의궤 면모 다각도 접근 도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의궤를 일반에 공개하는 특별전을 통해 관람객들이 의궤의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3차원(3D) 대형 입체영상도 동원했다. 관람객들이 의궤의 구성과 목차, 〈가례도감의궤〉나 〈국장도감의궤〉에 그려진 장

대한 행렬과 의식에 사용한 물품을 3D영상을 통해 다각도로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가정주부 노승희(31)씨는 "외규장각 의궤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뉴스를 보고 박물관을 찾았는데 조선 시대에 그린 그림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데 깜짝 놀랐다"며 "다시는 이런 문화재를 외국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규장각 의궤 환수를 계기로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국외 문화재 환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창설 5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국외문화재팀을 발족하고,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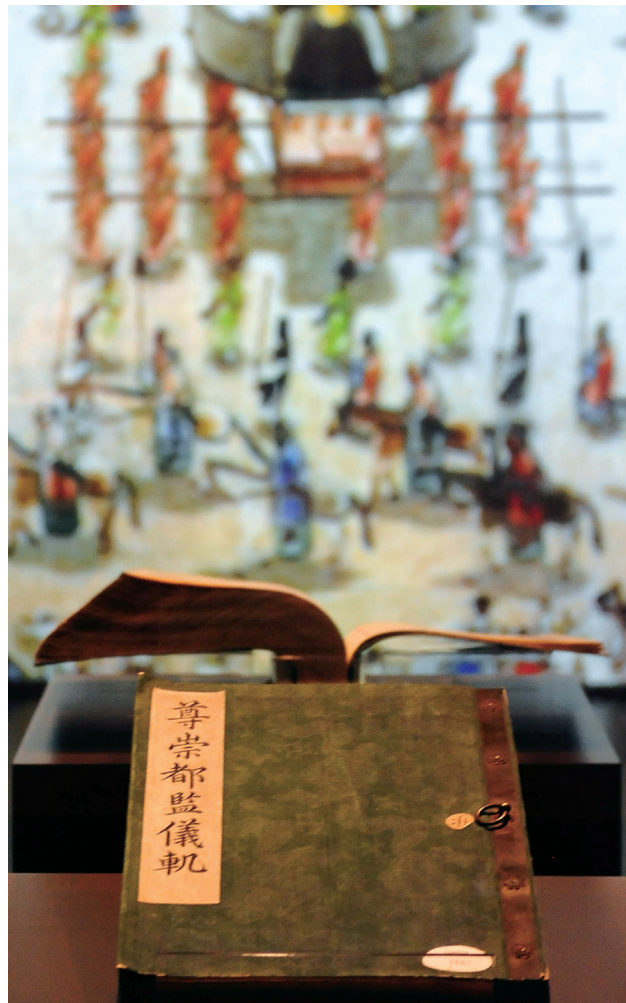
지난 7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열린 '문화재 환수 국제포럼'과 '문화재 환수 정책토론회'에는 최광식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제자리찾기의 혜문 스님 등을 비롯해 국내외 문화재 환수 전문가와 해외 석학,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지난 5월 말, 1백45년 전 프랑스군에 의해 유출된 외규장각 도서가 평화적 방법으로 돌아오는 등 올해는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의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문화재는 제작된 장소에 존재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는 문화재가 원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는 제작된 장소에 존재할 때 진가"

문화재청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확인된 것만 14만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길배 문화재청 국외문화재팀장은 "14만여 점의 문화재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불법, 부당하게 유출된 것"이라며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오쿠라 컬렉션의 고종황제 익선관과 투구, 갑옷과 이천 5층석탑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나영 이천 5층석탑 환수위원회의 실무위원은 "조선 왕실 의궤,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이천 5층석탑 등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운동이 2010년을 기점으로 더욱 활성화하는 추세"라며 "최근 문화재청에 문화재환수팀이 신설된 것은 그간 민간과 정부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해 온 활동의 또 다른 성과"라고 평가했다.

장성욱 문화재청 학예연구사는 "문화재청은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환수하고, 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며 "국제포럼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외 소재 문화재의 조사연구, 보호활용, 환수활용 기반 조성, 효율적 민관협력 방안 등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녹색 표지의 <존숭도감의궤>. 장렬왕후에게 존숭을 올리는 과정을 기록한 서책이다.

하지만 "대여기간 연장을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은 귀담아 새길 만하다. 현재 외규장각 의궤는 '반환'이 아닌 '대여' 형태로 국내에 들어온 상태다. '5년 주기로 갱신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패한 협상' '제2의 병인양요'라며 외규장각 의궤의 국내 환수를 폄하하는 시각도 있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수장고에서 외규장각 의궤를 처음으로 찾아낸 재불 서지학자 박병선(83) 박사는 "'대여'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장시간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의궤가 영원히 한국에 남도록, 다시는 프랑스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

글·이동훈 기자

우리의 아름답던 시절

그 후로 오랫동안…

새로 물길이 열리고

1 물장구 치고, 진달래 먹고(2009 한국의 강 입상작 · 전병태). **2** 낙동강에서의 나의 여고시절(2009 한국의 강 입상작 · 노은경). **3** 퇴적물이 쌓인 나주 지역 영산강.

물길 되찾은 '한반도 젖줄'

5개 도시서 릴레이 전시

박경아 기자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7월 20일 대구시 동구 신암4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막한 '2011 달라진 4대강 사진전'을 둘러보던 10대 고교생 한병호(경주 거주) 군은 그동안 자신이 알던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한 군은 사진전 한 코너에 전시된 설명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5년간의 홍수복구비(21조원)만으로 4대강살리기 소요 예산(22조2천억원)이 거의 해결된다는 4대강살리

다시 찾은 우리 강 웃음소리

4 낙동강에 만들어진 '큰 물그릇' 합천보. **5** 한강 살리기로 생태계가 되살아난 충주시 금릉동의 생태학습장. **6** 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의 수상가교 자전거길.

기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날 사진전을 찾은 50대 남성 권명철씨는 4대강살리기가 홍수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진귀숙씨는 4대강살리기가 수질개선·생태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4대강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날 사진전은 대구 전시(7월 20~22일)를 시작으로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릴레이 전시다. 동대구역 광장에 이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7월 25~30일) ▲대전역 광장(8월 1~6일) ▲광주버스터미널(유스퀘어 8월 8~13일) ▲부산역 광장(8월 15~ 20일)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다.

전시는 '우리의 아름답던 시절', '그 후로 오랫동안', '새로 물길이 열리고', '다시 찾은 우리 강 웃음소리 하하하(河河河)', '우리 강을 지키는 사람들' 순의 5개 테마로 구성, 4대강의 모습을 담은 총 50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이번 사진전은 누구나 관람 가능하도록 열린공간에서 개최하고 서울광장 사진전부터는 현장에서 화보집도 무료로 배포된다. G

글·박경아 기자

'2011 달라진 4대강 사진전' 일정

기간	시간	장소
7월 25~30일	오전 10시~오후 8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8월 1~6일		대전역 광장
8월 8~13일		광주버스터미널(유스퀘어)
8월 15~20일		부산역 광장

문의·2011 달라진 4대강 사진전 사무국 02-525-2648
4대강살리기 홈페이지 www.4rivers.go.kr

‘농업생명 허브’ 전북에 씨 뿌리다

전북혁신도시에 농업생명연구단지 기공… 5개 농업기관 2014년까지 입주

지난 7월 21일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의 전북혁신도시에서 농업생명연구단지 합동 기공식이 열렸다. 농업생명연구단지는 ‘농업 생명의 허브’란 슬로건 아래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에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 등 모두 5개 농업 관련 공공기관이 오는 2014년 말까지 입주하게 된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7월 21일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 혁신도시 사업지구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산하 4개 연구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이전 청사 기공식이 열렸다. 이번 기공식은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진주 일괄이전 결정으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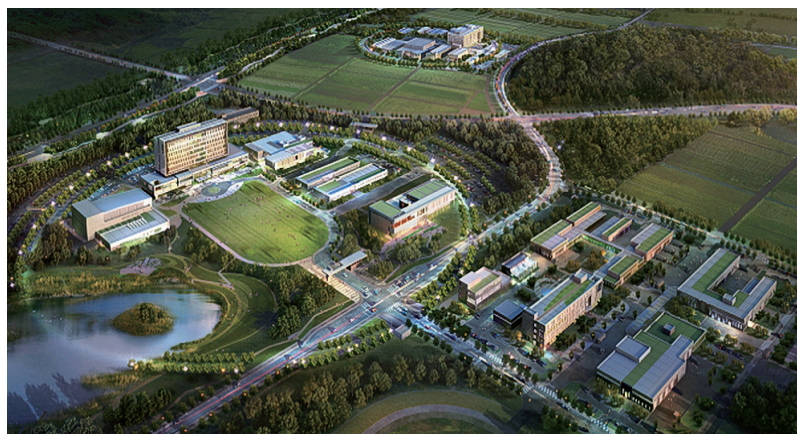
전북 지역 주민들도 농업생명연구단지 착공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농업생명연구단지 합동 기공식에는 전북 지역주민 6백여 명을 비롯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 강봉균(민주당·전북군산)·김춘진(민주당·전북부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에 조성되는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곳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다.

농촌진흥청과 산하 연구기관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행정연수원 등 모두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만 3천4백여 명에 달한다.

사업비 1조7천억원… 고용유발 7천4백명

이날 농업생명연구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생명연구단지를 농산업 혁신거점으로서 친환경 첨단 농업연구단지로 조성해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

지난 7월 21일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 전북혁신도시 사업부지에서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연구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지역주민 6백여 명이 참석해 혁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농촌진흥청

오는 2014년까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농업생명연구단지 조감도.

사업개요

사업명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사업(그린 밸리)
이전위치	전북 전주시 만성동, 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대
부지면적	6백30만9천2백97제곱미터. 시설 1백41개동
총사업비	1조7천8백93억원 (토지매입비 8천4백3억원, 공사비 9천4백90억원)
이전기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라며 "전라북도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농업생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촌진흥청 산하 4개 연구기관은 농업과학 기초기술과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산업에 대한 연구와 지도를 수행하는 중심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박사급 연구원 8백30여 명을 포함해 정규직 1천7백여 명과 3천여 명의 연구보조원 등이 전북 현지에서 각종 연구와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농수산대학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전북혁신도시는 명실상부한 국내 농업 허브로 바뀌는 셈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해 첨단 농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며 "연간 1백80여 회의 국내외 행사가 열리고 연간 4만명 이상이 혁신도시를 찾아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전북 지역경제도 꿈틀거리고 있다.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 공사에 9천4백90억원이 투입되는데, 지역 건설회사가 총 건축공사비의 40퍼센트 이상을 공동도급토록 한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혁신도시추진단은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7천2백억원에 고용유발효과는 7천4백명"이라며 "완공 후인 2015년부터는 매년 3천7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천8백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배후 주거시설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청사 착공과 연계해 올해 안에 혁신도시 내에 모두 1만5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LH가 공급하는 6천 가구도 포함된다. 그중 전북혁신도시는 약 2만9천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자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한 상태다.

올해 말까지 80개 기관 이전청사 착공

LH 외에 한국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일반매각에서 유찰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행령의 주된 골자다.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존 부동산의 처분이 원활치 않아 공공기관 이전의 발목을 잡아 왔다.

한편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공기관 이전청사는 혁신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친환경적으로 지어진다.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그린 1등급 인증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10퍼센트 이상 사용하게 된다. 또 기존 건축물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40퍼센트 이상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형 녹색청사로 짓는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올해 말까지 80개 공공기관의 청사착공을 추진하고, 내년까지는 모든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이동훈 기자

"최고 대회 만들자"… 대구, 마지막 스퍼트

경기장 편의시설 · 선수촌 내부 인테리어 막바지 공사 한창

오는 8월 27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는 대회 개막을 30여 일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대구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한 경기운영 준비, 그리고 선수촌과 대구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편의시설 준비 열기가 여름 더위보다 뜨겁다.

"나도 육상선수가 될 수 있어!"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열기를 맛보기 위해 7월 20일 대구스타디움을 찾은 천안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내일의 육상스타를 꿈꾸며 트랙 위를 달리고 있다.

"덥다"는 말로는 그 열기를 다 담아내기 부족하다. 지난 7월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의 대구스타디움.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까지 올라 콧속까지 뜨겁다. 뜨거운 여름 열기 속에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서편주차장 구역에서 마무리 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날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까지 'D-38일'.

이 공사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주최로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구세계육상대회 기간 중 운영될 국제방송센터(IBC)와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들어설 지하공간 개발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곳 서편주차장 구역에서 총 면적 약 5만평방미터 규모로 판매시설, 공연장, 음식점, 연결통로 등을 건설하고 있다.

기존의 월드컵경기장을 리모델링한 대구스타디움에서 연결통로 공사를 새로 하는 것은 방송중계 차량 출입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세계육상대회 기간 중 지하 1~2층 일부를 IBC로 사용하고, 1층 주차장 일부를 방송중계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편주차장 반대편에 나 있는 대구스타디움의 또 다른 지하출입로는 평소 차량과 사람이 드나들지만 대회기간 중에는 관람객의

도보 통로로만 사용된다.

지하주차장을 지나 주경기장 지면을 보는 순간 타원형의 푸른색 몬도트랙과 중앙의 초록 잔디가 눈에 들어왔다. 30도가 넘는 바깥의 '소 핫' 열기가 '소 쿨'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반발탄성이 좋아 기록 향상에 가장 적합한 '기록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몬도트랙은 발에 닿는 느낌이 푹신하면서도 단단했다. 이 몬도트랙에서 '육상의 꽃'으로 불리는 1백미터를 포함하여 단거리(1백~4백미터), 중거리(8백~1천5백미터), 장거리(5천~1만미터), 릴레이, 허들, 장애물경기 등 총 24개 종목의 트랙경기가 열리게 된다.

이날 주경기장에서는 대구시와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등이 시행하는 '해피트레인' 행사에 참여한 천안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보호자 2백여 명이 대구세계육상대회의 규모와 열기를 미리 체험하며 즉석달리기 경주를 열기도 했다.

대구스타디움서 트랙 24 · 필드 16종목 경기 열려

트랙 안쪽 필드를 채운 초록색 잔디에서는 물주기가 한창이었다. 이곳 필드에서는 멀리뛰기·장대높이뛰기 등 도약 종목, 그리고 창던지기·원반던지기 등 투척 종목 등 모두 16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게 된다.

로드레이스 경기도 5개 종목이 열린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박창식 로드경기팀장은 "마라톤과 경보는 대구 중구 동인동의 국채보상공원을 출발·도착점으로 한 도심선회 코스"라며 "경보는 평지 코스여야 하고, 마라톤도 평지일수록 기록이 좋다는 점 때문에 평지인 대구 도심코스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조직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예비 엔트리는 2백7개국 선수임원 3천8백5명이다. 8월 15일 최종엔트리 마감 때까지는 2백12개국이 접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구세계육상대회는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일종목 대회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세계육상대회를 위해 대구시는 주경기장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웜업장과 투척전용준비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다. 대구스타디움과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인 선수촌도 숙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1천5백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과 헬스클럽, 디스코텍, 공연장 등 각종 건강위락시설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대구조직위 김영수 선수촌부장은 "선수들이 이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전소는 물론 세탁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리 선수촌에서는 특히 한국의 농촌문화와 뛰어난 정보기술(IT)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육상선수촌 입구. 대회 개막에 앞서 8월 20일 개촌식을 갖는다.

대구조직위가 성공 개최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것이 더위다. 과거 유명했던 대구의 더위가 대구시의 지속적인 도시녹화 프로젝트에다 최근의 기상이변까지 겹쳐 근래 들어 다른 도시들과 별 차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대구조직위는 더위 퇴치에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선수촌엔 환전소 · 세탁소 등 모든 편의시설 갖춰

특히 마라톤과 경보 등 로드레이스는 기상조건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로드레이스 경기시각을 오전 9시(50킬로미터 남자경보는 8시)로 편성하는 등 선수 보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또 선수들이 경기 도중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국내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안개분무 시설을 설치하고, 급수·스펀지와 개인음료 공급대를 운영하게 된다.

선수들은 물론 관중의 열사병, 탈수현상 등에 대비해 대구스타디움에는 관중석 곳곳에 119 소방대 응급처치팀을 배치하고, 관중 구급소도 별도로 설치한다.

대구시민들의 마음도 대구세계육상대회의 성공 개최를 향해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대구 시내 개인택시기사인 이치우(56)씨는 "큰 국제대회가 열리면 당장은 교통통제도 감수해야 하고 시민 불편이 커진다. 하지만 길게 보아 대구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대구 기업,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결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대구세계육상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거리마다 만국기 · 포스터 · 걸개그림

대구가 대세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을 30여 일 앞둔 대구는 대회 개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다. 거리마다 만국기가 펄럭이고 대구세계육상대회 포스터와 걸개그림, 깃발들이 지하도에서 빌딩 끝까지 대구 시내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충성심이 강하고 영민한 한국의 토종개인 삽살개를 모티브로 개발한 대구세계육상대회 마스코트 '살비(SARBI)'는 대구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이미 친숙한 캐릭터가 됐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대구 시내 중심가인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문을 연 '동성로 홍보관'이 기대 이상의 운영 성과를 얻자 7월 10일부터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인구밀집 지역에서 '이동식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육상 교육을 하고 홍보와 판매도 겸하는 '대구스타디움 체험·홍보관', 그리고 대한민국과학축전과 함께하는 'EXCO 육상과학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동성로 육상 홍보관'에서는 7월 20일 현재로 입장권 4백74매(8백73만2천원)가 판매됐으며 약 2만명의 관람객이 이용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다 보니 특히 외국인 대상 판매가 절반에 이른다. 오는 9월 4일까지 운영되는 '이동식 홍보관'은 대회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영상과 홍보물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레이터와 살비가 대회일정 안내를 하고 입장권을 판매한다.

'대구스타디움 체험·홍보관'은 D-30일(7월 28일)에 맞춰 개관, 9월 4일까지 운영된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육상교육 체험학습장으로 꾸며진다. 또 8월 10~15일 대구엑스코에 마련되는 'EXCO 육상과학관'은 관람하는 어린이들이 육상경기에 대한 흥미를 느끼도록 첨단 스포츠과학과 육상 게임 등 다양한 육상 체험시설로 꾸며지며 입장권 판매도 겸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1

대구세계육상조직위

2

뉴시스

3

연합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연합

4

1 우리도 대구세계육상대회 보고파! 대구육상조직위가 운영하는 ‘동성로 홍보관’을 찾은 외국인들.

2 우리도 함께 해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향 현풍휴게소가 최근 안내소 옆에 대구세계육상대회 전용 홍보관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3 축제란 바로 이런 분위기! 7월 18일부터 2백12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회원국의 국기가 내걸린 대구 수성구 수성교.

4 어이쿠! 대구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의 나라? 육상 허들선수 이정준 선수의 모습을 담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형거리 장식물.

5 달리는 살비! 창 던지는 살비! 대구 중심가인 중앙로역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대구세계육상대회 마스코트 살비.

박경아 기자

5

다리 없는 '의족'선수 달구벌 달린다

남아공 피스토리우스, 남자 4백미터 경기서 45초07로 기준기록 당당히 통과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가 달구벌을 달린다. 남아공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4)가 남자 장애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자격을 따냈다. 그는 8월 27일 개막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비장애인 엘리트 선수들과 경쟁한다.

AP뉴시스

피스토리우스는 지난 7월 2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리냐노 육상대회 남자 4백미터 경기에서 45초07로 1위를 했다. 종전 개인 최고 기록(45초61)을 0.54초 앞당겼으며 세계선수권·올림픽 A 기준 기록(45초25)도 통과했다. 특히 20일은 남아공 대표선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이어서 기쁨이 더 컸다.

국제육상연맹(IAAF) 규정으로는 한 나라가 A 기준 기록을 통과한 자국 선수를 세 명까지 세계선수권에 내보낼 수 있다. 피스토리우스는 이번 시즌 남아공 랭킹 4위였다가 2위로 올라서며 대구세계선수권 출전을 확정지었다.

피스토리우스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꿈의 레이스였다"고 감격스러워했다. 그는 "마지막 1백미터는 아주 편안하게 달렸다"면서 "'대구에서 만납시다'라는 말이 기분 좋게 들린다"고 말했다. 외신은 "4개의 장애인올림픽 금메달을 딴 피스토리우스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첫 장애인 스프린터가 됐다"고 알렸다.

학생 때는 럭비·수구·테니스·레슬링 즐겨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같은 메이저대회의 무대에 서겠다는 피스토리우스의 도전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1986년 요하네스버그에서 태어난 그는 선천적으로 두 다리의 종아리뼈가 없었다. 생후 11개월 때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의족이라도 착용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보조기구를 사용해 걸음마를 배웠다. 운동에 관심이 많아 학생 시절엔 럭비, 수구, 테니스, 레슬링을 즐겼다. 육상은 2003년 말부터 시작했다. 럭비를 하다 다쳐 재활하는 과정에서 달리기의 매력에 빠졌다.

피스토리우스는 2004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2백미터에서 금메달을 딴 뒤 비장애인 스타들의 경연장인 올림픽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베이징올림픽을 준비하던 2008년 1월 첫 시련을 겪었다. 국제육상연맹이 피스토리우스의 보철 기기를 문제 삼으며 올림픽 출전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IAAF는 피스토리우

AP

스처럼 탄소 섬유 소재의 첨단 의족을 착용할 경우 일반 선수와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에너지 소모가 25퍼센트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기술적 장비로 부당한 도움을 얻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피스토리우스는 "난 종아리 부위 근육이 없고 몸 전체의 피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불리한 여건에서 뛴다"고 반박하면서 스포츠중재위원회(CAS)에 제소했다. CAS는 2008년 5월 IAAF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면서 피스토리우스가 올림픽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는 베이징올림픽 A 기준 기록(45초55)에 0.7초가 모자라 출전 티켓을 얻지 못했다. 남아공 1천6백미터 계주팀 후보에도 들지 못해 결국 베이징행이 무산됐다.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선 3관왕

당시 같은 남아공의 여자 수영선수 나탈리 뒤 투아는 절단 장애인으로는 사상 최초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했다. 2001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은 뒤 투아는 오픈 워터 10킬로미터 종목에서 25명 중 16위를 기록했다. 뒤 투아는 19일 열렸던 2011 중국 상하이세계선수권 오픈 워터 10킬로미터에도 출전해 56명 중 39위를 했다.

피스토리우스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 나가지 못한 이후에도 도전을 계속했다.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 나가 1백미터·2백미터·4백미터 우승을 휩쓸었다. 남아공 프레토리아대학에서 경영학과 스포츠과학을 전공하는 그는 대구세계선수권을 노리고 훈련을 거듭했다. 올해 3월 개인 최고 기록(45초61)을 세웠고, 넉 달 만에 세계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며 꿈을 이뤘다. 내년 런던올림픽 출전도 유력해졌다.

피스토리우스가 20일 4백미터에서 세운 45초07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5위, 2009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에서 4위에 해당한다.

피스토리우스의 경쟁자들
미국의 라숀 메리트·제레미 워리너 우승후보

라숀 메리트

제레미 워리너

육상 남자 4백미터 종목에선 기량이 엇비슷한 우수 선수가 많다. 엘리트 선수들은 45초 이내에 축적해 놓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으면서도 미세하게 페이스 조절을 해야 한다. 단거리와 중거리의 경계선에 있는 종목인데, 점차 단거리화하기 때문에 '가혹한 레이스'라 불린다. 1999년에 당시까지 꿈쩍 않던 세계기록(43초18)을 경신한 마이클 존슨(은퇴·미국)은 현역 시절 "마지막 50미터 때는 기도하면서 뛴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백미터에선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남아공)의 활약 여부와 함께 라숀 메리트와 제레미 워리너(이상 미국)의 대결이 관심을 끈다.

워리너는 2004 올림픽에서 우승하며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05 세계선수권과 2007 세계선수권에서 2연속 1위에 올랐다. 2007년 대회에서는 마이클 존슨(43초18)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빠른 43초45를 찍기도 했다. 워리너는 1990년대 54연승을 달렸던 마이클 존슨의 뒤를 잇는 선수로 평가받았다.

메리트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당시 최강자였던 워리너를 0.5초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걸어 주목받았다. 2009 베를린 세계선수권에서도 워리너를 꺾고 정상에 올라 세대교체를 이루는 듯했다. 그런데 2009년 10월과 12월, 2010년 1월에 세 차례 도핑 테스트에서 모두 금지약물(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나와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21개월 출장정지를 당했다. 얼마 전에야 비로소 미국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대구세계선수권에 출전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메리트와 워리너 외에 지난해 개인 최고 기록을 44초40까지 끌어올린 저메인 곤살레스(자메이카)와 지난 4월 44초65로 올해 최고 기록을 작성한 론델 바르솔로뮤(그레나다)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시즌 세계 랭킹으로 따지면 공동 15위 정도에 머문다. 피스토리우스가 대구세계선수권 결선에 오르려면 44초9를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스토리우스는 요즘도 힘들 때면 그의 어머니가 늘 해 준 말을 떠올린다. "너와 (장애가 없는) 형의 차이점은 딱 하나야. 매일 아침 형은 신발을 신고, 너는 의족을 신는다는 거지. 단지 그것뿐이야."

장애를 딛고 비장애인 엘리트 선수들과 세계선수권 스타트라인에 서게 된 피스토리우스의 투혼은 대구세계선수권의 또 하나의 볼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G

글·성진혁 기자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선수 시절 뛰고 또 뛰고… 지금은 방송인·해설가로 뛰는 양준혁

"여러분! 대구로 뛰어 오이소"

대구홍보대사 양준혁이 요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해서도 뛰고 있다. '양신(梁神)'으로 불리며 한국프로야구계에 각종 기록을 남긴 야구계 스타다. 그가 은퇴 후 방송 해설과 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바쁜 와중에도 고향을 위해, 대구세계육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뛰고 있다.

양준혁은 "많은 분이 이번 대구세계육상대회를 통해 달리기의 묘미를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몸집이 더 크시네요."

양준혁(42)을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한결같다. 키 1미터88에 몸무게 95킬로그램의 거구이니 그럴 만도 하다. 야구선수 생활을 할 때도 어지간해선 몸집에서 밀린 적이 없다.

우람한 몸집으로 그는 야구를 참 잘했다. 지난해 은퇴할 때까지 최다 경기 출장(2천1백35경기), 최다 홈런(3백51개), 최다 안타(2천3백18개), 최다 루타(3천8백79개), 최다 타점(1천3백89점), 최다 득점(1천2백99점), 최다 4사구(1천3백80개) 등 나열하기에도 숨이 벅찰 정도의 각종 기록을 세웠다. 팬들은 그를 '양신(梁神)'이라고 부른다.

방망이 실력에 관한 한 그는 신이라고 불릴 만하다. 그런데 많은 팬이 양준혁 하면 달리기를 연상한다.

그렇다. 그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열심히 뛰는 선수였다. 거구인 탓에 달리기가 빠르진 않았다. 그런데 평범한 땅볼이나 뜬공을 치고도 1루까지 죽어라 뛰었다. 전력질주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전력질주하다 보면 내야 안타 몇 개 더 만들어

양준혁은 "1년 내내 1루를 향해 전력질주를 하다 보면 내야안타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나온다"고 말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는 생각 외로 크다.

야구에서 3할 타자와 2할 타자는 천지 차이의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안타 1, 2개 차이로 3할 타자가 되기도 하고 2할 타자에 머물기도 한다.

양준혁은 20년 가까이 전력질주를 했다. 매년 5개 내외의 안타가 쌓이니 그 숫자는 무시할 수 없게 늘었다. 양준혁은 "최선을 다해 뛰지 않았다면 내가 세운 수많은 기록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전력질주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썩 빠르지 않은 발로도 그는 호타준족만이 할 수 있다는 20홈런-20도루 클럽에 4차례나 가입했다.

그런 그이기에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올해 초 대구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대구육상세계선수권 및 2011 대구방문의 해 등에서 대구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다.

양준혁은 "내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한 발씩 뛸 때마다 목표에 가까워지는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다. 가만히 서서 도태되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 더 많은 분이 이번 대회를 통해 달리기의 묘미를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준혁의 전력질주는 운동장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19일 은퇴한 후 바로 다음 날 방송 출연 섭외를 받고 방송에 나갔다. 올해는 SBS ESPN에서 야구 해설을 하고 있으며, KBS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

인기 강사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으며, 한 이동통신회사의 트위터 자키까지 맡았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바쁜 일정에서 최근엔 〈뛰어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사진〉이라는 책도 펴냈다.

최근 낸 책 제목도 〈뛰어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자신의 이름을 딴 '양준혁 야구재단'을 출범시켜 야구를 통해 청소년들을 사회적 리더로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양준혁은 지난해 자비를 들여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야구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7월 30~31일에도 대구 영남대 운동장에서 '제2회 양준혁 청소년 야구 드림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양준혁은 "남들처럼 해외연수를 다녀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재단을 설립하는 게 오히려 더 뜻깊겠다 싶었다. 우리 청소년들은 돈이 없어서 야구를 못 한다. 야구재단은 그런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야구를 통해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

제2의 이승엽, 박찬호도 좋지만 야구를 통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대통령, 시장 같은 사회 리더를 키우는 게 꿈이다. 공부만 하는 아이들보다 스포츠를 통해 성장한 아이들이 오히려 사회 리더로 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겉으로 볼 때 양준혁은 탄탄대로를 걸어온 것 같다. 이뤄낸 것도 많고 성공한 적도 많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2인자'의 삶을 살았다. 한창 야구를 할 때는 '홈런왕' 이승엽(현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의 그늘에 가려 있었다. 프로입단 후 국가대표로 뽑힌 적도 없다. 그는 주인공 대신 조연이 되기로 했다. 대신 최선을 다해 뛴다는 신념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양준혁은 "승엽이를 시기하기보다는 빛나게 해주는 게 우리 팀을 위한 도움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스포츠조선

달리자! 양준혁은 선수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전력질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세월이 쌓이고 쌓이자 어느 순간 그는 1인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다. 그 누구보다 성대한 은퇴식을 치렀고, 한국 프로야구사에 다양한 기록을 모두 세울 수 있었다. 양준혁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그 어떤 1인자도 부럽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 했다.

양준혁은 "이번 대구세계육상대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못 딸 수도 있고, 기록을 못 세울 수도 있다. 하지만 큰 대회를 유치하고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이 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뜨거운 응원을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G 글 · 이헌재 (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입장권 사면 KTX 전노선 10퍼센트 할인

경주엑스포와 연계할인… 대구백화점·대구은행도 티켓 이벤트

조선DB

김범일 대구시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김관용 경북지사(왼쪽에서 일곱번째)가 7월 18일 대구 동성로에서 경주문화엑스포·대구세계육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입장권 소지자를 위한 각종 혜택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국민 참여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먼저 대구세계육상대회 입장권 소지자는 대회 기간 중(8월 27일~9월 4일) KTX 전국 노선에서 전 좌석 대상 10퍼센트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할인혜택을 받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7월 27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다만 실물 입장권을 제시해야 하므로 온라인 예매는 불가능하고 현장 예매만 가능하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력,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 중 하나를 관람한 경우 나머지에 30퍼센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주문화엑스포는 8월 10일~10월 10일 열린다.

남은 좌석 한해 당일 경기 입장권 현장판매

한편, 대구백화점은 대회기간 중 대구세계육상대회 입장권 소지 고객에게 관람석용 의자 쿠션 등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특별할인 혜택도 줄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이미 2억4천여만원 규모의 입장권 구매약정을 했고 대회 입장권예매 전용창구 설치, 예금가입 고객 대상 입장권 경품행사, 대회기간 환전센터와 글로벌 ATM기 운영 등에 나서고 있다.

대구세계육상대회 입장권은 개막식이 열리는 8월 27일부터 경기 전날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8월 28일 열리는 경기의 경우 전날 오후 6시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당일 경기 입장권의 현장판매는, 경기 전날까지 예매로 하고 남은 좌석에 한해 판매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대구스타디움 입장권 판매소에서 입장권 현장판매와 예매권에 대한 실물입장권 교환을 실시한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우편 요청자에 한해 이미 실물입장권을 지급해 오고 있다.

단체(30퍼센트), 경로(50퍼센트), 장애인(50퍼센트), 국가유공자(50퍼센트)의 할인된 입장권을 구입하려면 콜센터(1544-1555) 또는 대회조직위(053-803-9264)에서 예매해야 한다. G 글·박경아 기자

입장권 구입안내

구분	내용
가격	• 개회식 : 2만~15만원(대회 1일째 저녁경기 포함) • 오전입장권 : 1만~3만원 • 저녁입장권 : 2만~10만원 • 일일입장권 : 2만5천~12만5천원(대회 2, 3, 4, 6, 7일째) • 시즌입장권 : 20만~85만원(전 경기)
구입 기간	• 예매 : 현재~경기 전날 오후 6시까지 • 실물입장권 구입 : 8월 1일부터 대구스타디움 판매소 • 실물입장권 교부 : 8월 1일~해당 경기 전까지 *올 3월 2일부터 우편요청자에게는 실물입장권 지급
판매처	인터파크(1544-1555), 대회조직위(053-803-9264), 대구은행 각 지점, 시청 및 구·군청 민원실, 편의점(GS25) *휠체어석 예매는 대회조직위 입장관리부(053-803-9264)로 연락

4대강살리기

4대강 국민 공모전

심벌마크 공모전

공모부문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이미지를 상징화 한 심벌 디자인
공모자격	개인 및 단체(4인 이내),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원) 재, 휴학생
공모기간	2011. 7. 11 (월) ~ 2011. 8. 5 (금) 18:00 까지

시상내역 (총상금 : 1,700만원)

분야	개인 및 단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700만원(통합1명)	
최우수상 (국토해양부장관상)	300만원(1명)	300만원(1명)
우수상 (국토해양부장관상)	100만원(1명)	100만원(1명)
장려상	50만원(2명)	50만원(2명)

유의사항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 권한은 국토해양부에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 수 및 작품 수준 등의 이유로 상금 및 수상인원은 변동 가능함
- 작품 제작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초상권 침해, 민 · 형사상 문제의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
- 제작에 사용된 모든 콘텐츠는 창작권 · 저작권을 제작자가 보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브랜드 네임 공모전

공모부문	수변공간 브랜드네임, 도메인네임
공모자격	전 국민 참여 가능
공모기간	2011. 7. 11 (월) ~ 2011. 8. 5 (금) 18:00 까지

시상내역 (총상금 : 440만원)

분야	브랜드 네임	도메인 네임
대상	아이패드(1명) 100만원 상당	아이패드(1명) 100만원 상당
최우수상	넷북(1명) 50만원 상당	넷북(1명) 50만원 상당
우수상	MP3 (2명) 20만원 상당	MP3 (2명) 20만원 상당
장려상	도서상품권 (3명) 10만원	도서상품권 (3명) 10만원

유의사항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 권한은 국토해양부에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 수 및 작품 수준 등의 이유로 상금 및 수상인원은 변동 가능함
- 동일한 명칭은 먼저 접수한 제작자를 시상함
- 작품 제작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초상권 침해, 민 · 형사상 문제의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
- 제작에 사용된 모든 콘텐츠는 창작권 · 저작권을 제작자가 보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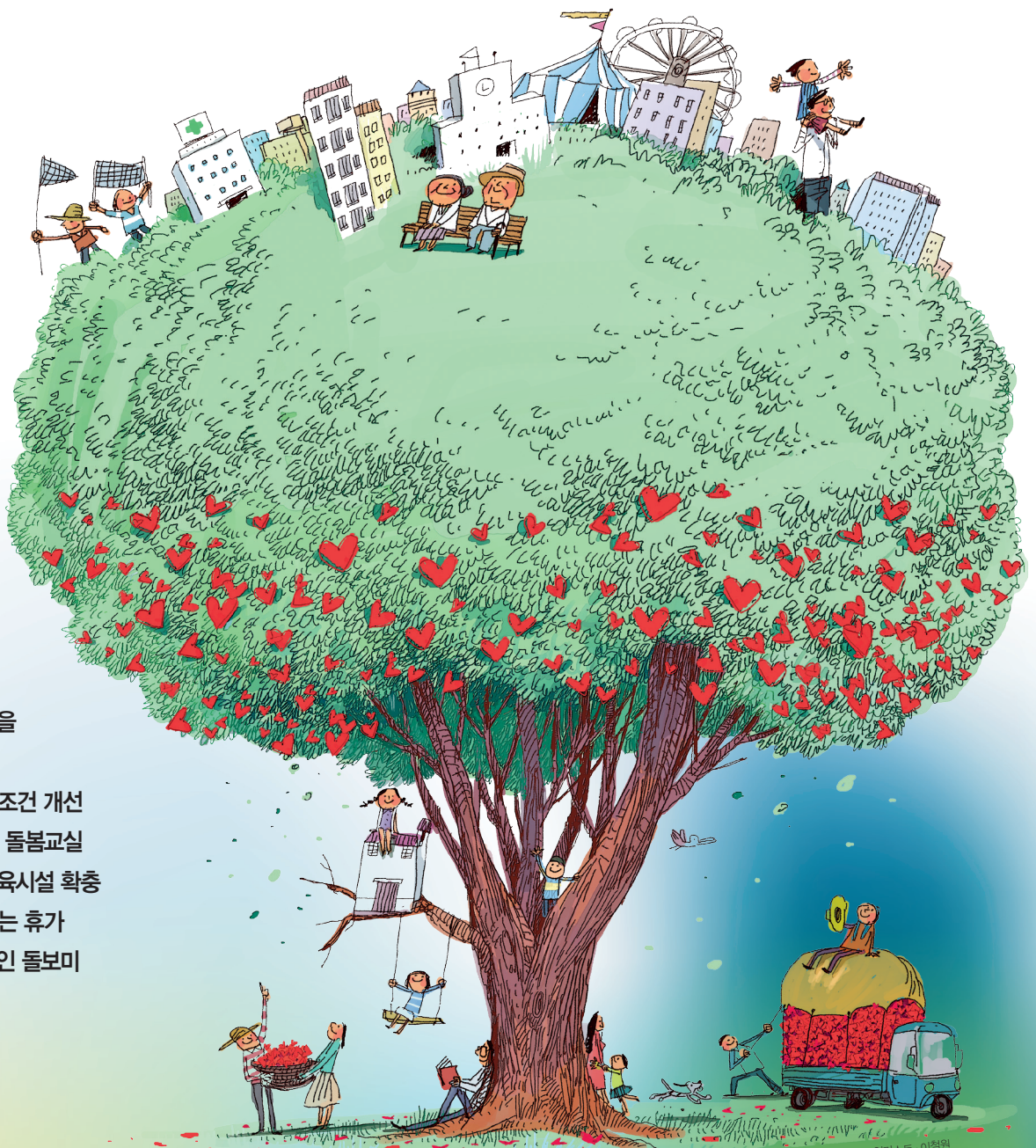
공모전 운영사무국
Tel 02)525-2648
MAIL : 4rivers@loomaroo.com

상세공모요강은 4대강 국민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contest4rivers.co.kr/)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기 획 특 집

촘촘한 복지 그물망 서민들 주름살 편다

복지가 향하는 곳은 본래부터 서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것이 복지입니다.
정부는 서민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넓히고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러스트 · 이철원

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진은 종로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

'배달사고' 없는 복지전달체계 만든다

담당공무원 2014년까지 7천명 증원… 상위직 보임 확대로 전문성도 높여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다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은 왜 작게 느껴질까. 많은 국민이 이런 의문을 제기한다. 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정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복지행정에서 새는 돈을 잡고 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곡을 찌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경상북도의 한 군청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너무 바쁘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 기초노령, 한부모가족, 장애인, 영유아 등의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다.

개별가구를 찾아가 상세한 사정을 듣고 그에 걸맞은 해답을 찾아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밀려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해가 저문다.

A씨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전국 시·군·구 대부분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처한 현실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1명이 2천9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중과부적이다. 복지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 리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지담당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 모두 7천명을 늘려 현재 읍·면·동당 1.6명에 불과한 복지담당 인력을 3.0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와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 · 지자체 2개 부문 나눠 제도 개선

복지담당 인력 증원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1천60명, 2012년 3천명, 2013년 1천8백명, 2014년 1천1백4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복지직은 5천2백명으로 모두 신규로 채용된다. 나머지

1천8백명은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을 전환배정해 채운다.

사회복지 직렬의 상위직 보임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직에도 과장이나 팀장 등을 배치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복지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회복지직은 대개 1인 체제여서 승진을 하면 해당 업무를 이어 가기 쉽지 않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상위직이 두툼해지면 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전달체계도 개선한다. 복지재정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사업집행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선DB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사진은 대구 남구의 늘해랑푸드마켓.

현재 정부의 복지사업은 13개 부처, 2백92개에 달한다. 문제는 각 부처가 제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고 한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러 곳의 지원을 받는 일도 생긴다.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은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 등 2개 부문으로 실시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먼저 1백56개 유형의 중복수급 금지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가령 복지부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엔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나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업무추진 절차도 재편된다. 지금까지 각 부처는 사업을 제각각 기획, 추진해 왔다. 이러다 보니 사업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총괄 조정한다. 각 부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복지부나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사업 대상 기준도 표준화된다. 새로운 복지사업이 시행돼도 자신이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원대상인 줄 알았지만 막상 신청하면 대상이 아니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선정기준이 무려 41개나 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집행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존의 '서비스연계팀'을 확대 개편해 '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평균 7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단편적인 지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종합적인 상담과 통합사례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통합사례는 각자의 사정에 최적화한 맞춤형 복지를 의미한다. 서울시의 '그물망 복지센터'와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가 국내 대표적인 통합사례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업 초기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단편적 지원에서 통합사례 관리로 최적화

예를 들면 이렇다. 뼈가 조각 나 지체장애 4급인 어머니와 각종 질병과 신용불량인 아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단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희망나눔지원단이 가동되면 어머니의 뼈와 아들의 질병, 신용회복과 물품지원, 아들의 취업지원, 거주지 이전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월 현재 전국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4백7개에 이른다. 식품 기부 규모도 98년 28억원에서 2010년 7백12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하지만 운영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부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치중돼 있는 비중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식품을 기부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무관청과 지방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도서 산간 지역에 이동식 푸드마켓 사업을 활성화하고 난립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통폐합을 유도할 예정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쪽방촌 주민에 임대주택… 삶의 질 Up!

인근 원룸 등 매입해 공급… 비닐하우스·고시원·노숙자까지 대상 확대

서울 영등포역 기찻길 옆에는 5백여 가구의 쪽방이 밀집해 있다. 성인 한명이 간신히 누울 만한 크기다. 쪽방의 태반은 무허가 건물이며, 화재에도 극히 취약하다. 정부는 쪽방을 비롯한 비주택에 사는 거주자가 전국적으로 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조선DB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7월 8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쪽방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92세의 나병훈 할머니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이다. 지난 7월 18일 찾은 영등포동 422-63 무허가 건물에는 나 할머니 말고도 여러 명의 쪽방촌 주민이 살고 있다. 환기가 되지 않아 후끈한 열기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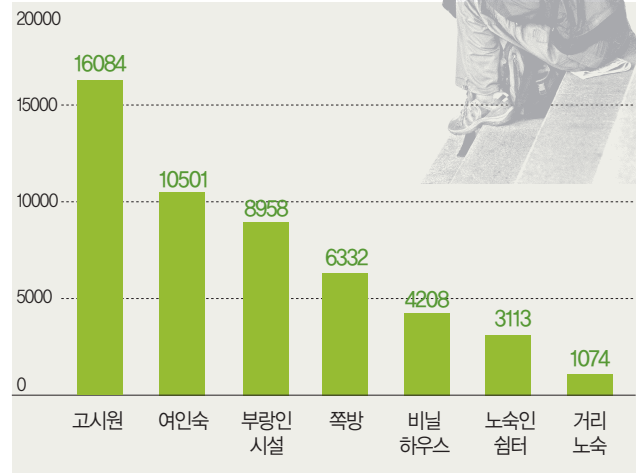
등이 구부정한 나 할머니는 쪽방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밥지을 쌀을 씻고 있었다. 나 할머니는 지난 2000년 영등포 쪽방촌에 자리 잡았다. 나 할머니는 "춘천에서 올라와 한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려 했는데 택시기사가 이곳으로 데려다줬다"며 "인근 교회의 도움으로 월세 12만원을 내고 산다"고 말했다. 성인 한명이 겨우 누울 만한 방에는 화재대비용 마스크가 비치돼 있었다. 방에 있는 선풍기에선 뜨거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정상주택 아닌 비주택 가구 전국 5만 가구

영등포 쪽방촌에는 나 할머니와 같은 주민 5백50여 명이 모여 산다. 이 일대 사창가를 개조한 쪽방촌은 무허가 건물이 태반이다. 밤에는 청소년의 출입도 통제된다. 영등포 쪽방상담소 이진호 간사는 "한 달 평균 월세는 전기, 수도요금 다 포함해서 선납으로 22만원 선"이라며 "주민의 70퍼센트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일용직 종사자"라고 말했다.

지난 7월 8일 김황식 국무총리도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나 할머니를 비롯한 이 일대 주민들과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노숙자,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비정상적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물량을 늘리겠다"며 "노숙인 쉼터나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할머니와 같이 쪽방과 비닐하우스 같은 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5만 가구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1천7백57만 가구)의 0.3퍼센트다. 거주형태는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쉼터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그중 1인 주거시설로 전락한 고시원이 1만6천84가구로 가장 많은 수를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차지한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은 극히 열악하다. 평균 주거면적은 6.9제곱미터다.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제곱미터)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주방과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주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전체 가구의 60~70퍼센트를 웃돈다. 무허가 건물이 태반이라 화재 위험에도 늘 노출돼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만한 탈출구가 극히 드물다는 것. 무직이 42.9퍼센트에 달하는 등 일자리가 없고 소득수준도 매우 낮다. 소득이 있다 해도 한달 평균소득이 63만6천원에 불과해 월평균 임대료 20여만 원은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더욱이 평균 가구원 수도 1.4인으로,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해줄 가족관계가 해체된 '나홀로' 가구가 71퍼센트에 달했다.

9월부터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강화

이에 오는 9월부터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에 한정된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도 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숙인 쉼터 등에 사는 대상자는 1만2천71명으로 전체 비주택 가구의 24퍼센트에 달한다.

임대주택 특별공급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12년까지 5천 호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퍼센트 내외다. 특히 쪽방촌 인근 원룸을 우선 매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확대키로 했다.

입주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도 50퍼센트 감면한다. 영등포 쪽방상담소 이진호 간사는 "쪽방촌 주민 대부분 보증금 없이 선납 월세로 사는데 100만원의 보증금은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입주민들의 임대료를 50퍼센트 감면해 줄 방침이다.

취업·창업과 연계시켜 자활의지 높여

물론 단순 주택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희망가구에 대해 개인별 상담과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해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최대 월 20만원에 달하는 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 시 최대 1백만원의 성공수당을 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임대주택을 제공할 때 자활의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해 부작용이 속출한 데 따른 개선책이다. 실제 과거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임대료를 연체하다 자진퇴거하는 부적응 사례가 빈번했다. 심지어 일부 대상자는 임대주택 입주 시 무료급식 등이 끊어질 것을 우려해 아예 임대주택 입주 자체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대신 질병과 장애로 자립이 어려운 거주자는 '그룹홈' 입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그룹홈은 한 채의 임대주택에 4~6인이 공동 거주하며 사회복지사가 자활지원과 질병치료를 돌봐주는 주거형태"라며 "3개월 이상 그룹홈에 입주해 자활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

글·이동훈 기자

택배기사의 하루는 무척이나 길다. 이른 아침부터 택배 물품 하차 작업이 이뤄지는 곳은 대부분 주차장과 같이 뻥 뚫린 공간이다. 햇볕을 피할 그늘조차 없다. 비 오는 날이면 고스란히 비를 맞으며 일해야 한다. 그래도 이들은 삶의 희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뛴다.

택배기사의 하루 동행취재

하루 1백50건 배달… “밥 먹을 틈도 없어”

2리터용 생수 12병의 택배비가 고작 2천5백원이다. 해마다 택배 물량은 늘고 있지만 택배업체의 과당경쟁으로 배송수수료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턱없이 낮아진 배송수수료 탓에 하루 12시간 이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수입은 턱없이 낮다. 지난 7월 19일 택배기사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다.

아침 8시30분, 택배기사 권순열(28)씨의 일과는 중노동으로 시작한다. 컨테이너 차량에 실린 물품을 내리는 동시에 각자 담당 구역별로 구분한 후 자신의 차량에 실어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서울역 주차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었다.

이날 권씨는 일명 ‘까대기’ 작업 당번이었다. ‘까대기’는 컨테이너 차량에서 물품을 운반 작업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말한다. 2천 개 가까이 되는 물건을 2~3명이 쉴 틈 없이 운반대에 올려놓아야 하는 상당히 고된 일이다. 컨테이너 차량 밑에서는 나머지 택배기사들이 운반 작업대 레일을 타고 내려온 물품을 각자 구역별로 구분하느라 분주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하차 작업이 겨우 끝났다. 이제부터는 개별 배송 물품의 바코드를 기계로 일일이 찍어야 한다. 택배가 하차장에 도착했다는 확인을 하는 것이다. 배송 후에도 이런 작업을 거친다. 그래야만 혹시 물건이 분실될 경우 어디서 없어졌는지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기사가 모두 물어줘야 한다. 권씨는 “파손도 있지만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도 빈번해요. 누군가 차량에서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분명 배송했는데 못 받았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다 배상해야 하니, 그럴 경우 속상하죠”라고 말했다.

오전 10시46분, 드디어 출발이다. 정동, 무교동 등 주로 직장가를 도는 권씨는 서둘러 차를 몰았다. “회사원의 경우 점심시간에는 자리에 잘 없고 연락도 잘 안 되거든요.” 권씨는 하나라도 더 배송하기 위해 바삐 뛰어다녔다. 물건 10여 개를 배달하는 데 1시간 남짓 걸렸다. 보통 택배기사가 하루 평균 1백~1백50개를 배달한다. 한 시간에

택배기사 한숨 덜어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의 한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8일 택배·퀵서비스 기사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 택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나온 대책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 문제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간 유휴 용달차량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적정 용달차량 권리금을 설정한 후 용달 및 통합물류 협회 주관으로 양도 및 양수 신청자를 모집해 거래를 연결한다는 방안이다.

작업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택배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분실·파손), 건강상 휴무 시 이에 따른 손실책임 등을 모두 택배기사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했던 산재보험료도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배기사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 구역도 확대된다. 한진택배 서부지점 오만석 지점장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시행돼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택배기사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 구역을 운송사 차고지뿐 아니라 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은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며 개선책을 환영했다.

10개면 어림잡아도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권씨는 2리터용 생수 12병을 어깨에 짊어지고도 엘리베이터가 닫힐세라 뛰어 탔다. "저렇게 무거운 생수 택배비가 2천5백원이에요. A4용지도 보통 택배 하나당 2박스씩 담아 보내요. 이 중 저한테 얼마나 떨어질까요."

택배기사에게 주어지는 건당 배송수수료는 현재 7백~8백원 수준이다. 해마다 택배 이용객은 늘고 있으나 택배업체의 과당경쟁으로 배송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루 평균 12.6시간 근무… 밤 9~10시에 퇴근

권씨는 1시가 훌쩍 넘어서야 간신히 짬을 내서 점심을 먹었다. 평소에는 편의점에서 빵으로 때우거나 그마저도 거르기 일쑤다. "주어진 물량을 다 처리하려면 저녁까지 굶는 건 다반사예요. 보통 밤 9~10시쯤 퇴근하는데 그때 집에 가서 폭식하는 거죠."

택배기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2.6시간이다. 몸이 상할 만도 하련만 아파도 쉴 수 없다. 건강상 휴무 시에도 이에 따른 손실책임을 택배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권씨는 5년간 일하며 딱 하루 쉬었다고 한다. "신종플루에 걸려서 하루 쉬었어요. 일당에서 제하니까 보통은 다쳐도 배달하는 길에 병원 가고 하죠."

이날 배달 작업은 저녁 7시쯤에야 끝이 났다. 그러나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송장을 정리하고 픽업해 온 택배물건을 컨테이너 차량에 싣는 상차 작업까지 하다 보니 어느새 밤 9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군 제대 후 아는 동생이 택배기사 일이 돈을 좀 잘 번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자가용 차량으로 일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돈 벌기가 쉽지 않네요. 나가는 돈이 많아요. 2주 만에 주차 딱지만 벌써 2개 뗐네요."

택배기사는 크게 개인 화물차를 소유한 지입 택배기사와 택배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는 택배기사로 구분된다. 이 중 지입 택배기사가 전체 70~80퍼센트를 차지한다. 권씨 역시 지입 택배기사다. 이들 지입 택배기사의 경우 차량 구입부터 기름값, 휴대전화비, 주차비 등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된 노동에도 수입은 턱없이 낮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기사의 월 평균 순수입은 1백62만원이다.

무엇보다 큰 부담은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다. 개인이 화물차를 구입해 택배 배달용으로 쓰려면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무려 1천만원에 거래된다. 구입비가 없어 대부분은 매월 12만~15만원씩 납부하며 번호판을 임차해 쓴다. 이마저도 확보가 어려워 일부 택배기사는 자가용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하며 벌금 폭탄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G

글·이제남 기자 / 사진·이경민 기자

“엄마, 방학 걱정마세요!… 학교 있잖아요~”

맞벌이 · 한부모가정 1~3학년 자녀들 대상 급식 · 체험학습 등 진행

‘방학’은 자녀가 휴식과 함께 학교생활의 연장이 될 수 있게 계획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저소득층가정처럼 부모가 자녀와 부득이 온종일을 함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방학에도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서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다.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급식 시간.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은 맞벌이가정 등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방학인데도 닫힌 교문 안쪽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한쪽 교실에 선 아이들이 급식을 위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다. 식판에 밥과 쇠고기미역국, 오징어볶음, 호박전, 겉절이, 수박 등을 담아 온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 식사를 했다.

금호초등학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하 돌봄교실)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20명을 비롯해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재학생 약 58명이 방학에도 학기 중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

대개 오전 8시를 전후해 등교한 아이들은 아침독서 활동부터 시작한다. 9시부터는 돌봄교실 지도교사와 함께 방학과제물을 하기도 하고 개별 학습지 등을 풀며 ‘열공’하는 시간이다. 10시30분부터 정오까지는 학교 도서관으로 가 독후활동을 한다. 이후 급식활동이 이어진다.

식사를 마친 후 한쪽에선 3학년을 대상으로 ‘레크댄스&포크댄스’ 특강이 열렸다. 서울시학생교육원에서 ‘1일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하는 특강이었다. 아이들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음

악에 맞춰 춤을 추며 연방 까르르 웃어댔다.

이처럼 금호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선 주 1회 특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동구생활체육회 등 지역 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특강을 진행해 주고 있다. 돌봄교실 학생들은 다음 날인 20일에는 어린이대공원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돌봄교실에서는 방학 중 3~4회 체험학습도 진행한다.

돌봄교실에선 방학 특강도 진행한다. '레크댄스'와 '포크댄스'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즐겁다.

금호초등학교는 맞벌이,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1~3학년 재학생 '돌봄교실'을 2006년 방과후교실 1학급으로 시작해 현재 3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3개의 교실 외에 주방시설과 개별학습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학부모 대신해 방학과제도 해결해 줘

개별학습 공간에서는 보충수업이 이뤄지고 휴게방에는 침대가 마련돼 있어 병세가 있는 아이들의 휴식을 돕고 있다. 학기 중엔 5명의 돌봄교사제로, 방학 중에는 전담교사 3명, 보조교사 1명, 주방교사 1명, 주방보조교사 1명 등 총 6인제로 운영된다.

입학 후부터 3년째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다는 장은서(10) 양은 "'돌봄교실'은 방학 때 더 재미있는 것 같다"면서 "(외부) 선생님들이 오셔서 춤도 가르쳐 주시고, 체험학습도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서 양의 어머니 최영미(42)씨는 "직장 다니는 엄마 대신 과제해결부터 방학 중 아이의 식사까지 해결해 주니 마음이 놓인다"면서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다' 보면 아무래도 불안한데 방학 중에도 아이가 보다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돌봄교실 이선화 교사 역시 "'돌봄교실'은 무엇보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저소득층가정 자녀들의 생활이 방과후나 방학 중에도 학교 내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돌봄교실은 오전 6시30분 '아침돌봄'에서 시작해, 방과 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오후돌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저녁돌봄'으로 나뉜다. 운영시간은 학생, 학부모 수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방학 중에도 변함이 없다.

돌봄교실에서는 보육과 식사는 물론, 각종 교육 및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휴식·수면·씻기 등 생활습관 지도와 인성지도, 과제 지도를 비롯해 논술·음악·영어·미술·과학 등 운영 주체별로 별도의 특강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엔 2천여 곳으로 2배 확대키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서울 2백14곳, 경기 2백79곳, 부산 1백19곳, 경북 74곳, 대구 68곳 등 전국 1천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백91곳, 초등학교 7백26곳, 유·초연계(유치원이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곳) 83곳이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돌봄교실로 선정된 곳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실 김창길 주무관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이에 따른 맞벌이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돌봄교실을 현재 1천여 학교에서 2천여 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2013년에는 3천여 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염동우 기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용안내

이용대상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정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우선으로 하되, 일반 희망 유치원생·초등학생도 참여 가능

이용시간 2011년 3월부터 오전 6시30분~오후 10시(조식과 석식 제공, 운영시간은 운영주최 측의 수요에 따라 유동적)

이용장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지정된 학교의 돌봄교실(돌봄교실 지정학교는 거주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용료 식비와 간식비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

지난 7월 22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 1층에 문을 연 '아이뜰 어린이집'.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금천구청이 함께 만든 산업단지내 보육시설이다.

규제발목 없애니 발동동 거릴 일 없어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 부산 등에도 6곳 추가

지난 7월 22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아파트형 공장 1층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금천구청이 함께 만든 어린이집의 개원식이 열린 것. 어린이집 개원으로 디지털단지에 근무하는 영유아 학부모들은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직장 내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대한민국 IT밸리다. 2000년대 초반 벤처거품이 꺼진 서울 테헤란밸리를 대체한 곳이다. 12만명의 정보통신(IT) 근로자들이 밤낮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에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은 2개가 전부였다.

야간근무 근로자 위해 시간연장반도 운영

지난 7월 22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이 빌딩 1층에 '아이뜰 어린이집'이란 보육시설의 개원식이 열린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관할 금천구청과 함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마련했다.

3개월여의 공사 끝에 연면적 7백47제곱미터의 어린이집이 탄생했다. 보육실 4개를 비롯해 조리실, 유희실, 사무실 등을 갖춘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는 모두 24억원이 들었다. 사회복지법인 '해든'이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디지털단지 근로자들이 바라던 시설"이라며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러워할 정도"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완공으로 갓 태어난 아기부터 4세까지 모두 80명의 아이들이 걱정없이 뛰어놀게 됐다. 어린이집 전문 보육교사 6명이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야간근무 근로자를 위해 오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시간연장반도 별도로 운영한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자녀는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한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

장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아이뜰 어린이집의 개원으로 서울디지털단지 내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뜰 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은 6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부산 녹산산단과 경남 양산 소주공단에도 어린이집 1개소가 올해 안에 개원한다. 박 이사장은 "인천 남동산단과 경기도 시흥의 시화산단, 광주 첨단산단 안에도 어린이집의 착공이 오는 10월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는 "어린이집 설치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요구에 지난 1월부터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주도로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 왔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집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게 한 것.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때문이지만, 이는 사실상 어린이집 개원을 어렵게 했다. 이미 분양이 끝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공간조차 마련하기가 힘들었다.

9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더욱 완화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5층 이하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또 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분양수익이 높은 상점과 편의시설을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을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전국에 모두 49개. 4만2천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에는 모두 86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은 44개로 아이들 수도 2천명에 그치고 있다. "부끄럽고, 많이 늦었다"는 박 이사장의 반성은 이런 까닭이다.

이에 오는 9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규제가 더욱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어린이집 설치규제 완화,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늘어난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 이하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자체 소유의 공원에도 직장용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7월 22일 서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에서 '아이뜰 어린이집' 개원식이 열렸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현황 (2010년 기준)

	시설수	아동수
국가산단	35	1570
일반산단	5	400
농공단지	3	141
외국인투자단지	1	33

중소기업주들의 어린이집 운영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 내 어린이집에 최대 4백8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토록 해 사업주들이 어린이집 개설에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부담률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기업서 설립, 지자체 운영 모델 확대

이 밖에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빈 공간에 5~20명 규모의 어린이집도 설치된다. 인근 건물의 조리실이나 인근 놀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은 산업단지공단이나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기업 대표들이 주도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해 다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용주 보건복지부 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전경련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기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이동훈 기자 / 사진·염동우 기자

일러스트 · 박용인

휴가시장 3조6천억… “내수경제 돕자”

국내 관광정보 제공과 함께 피서지 바가지 물가 집중단속

여름 휴가계획이 있는 국민 가운데 81.5퍼센트는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이다. 이 경우 올 여름 모두 3조6천1백11억원의 관광비용이 지출되고, 6조1천5백7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만3천6백9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여름철 해외휴가객을 국내로 흡수할 경우 내수진작,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지역경제활성화 등 내수진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하계 휴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은 이를 바가지요금 단속, 여름철 교통안전대책 마련 등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 국민은 1백명 가운데 64명꼴로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81.5퍼센트는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휴가 목적지는 강원도(28퍼센트)가 1위, 그 다음이 경상남도(15.3퍼센트), 전라남도(11.2퍼센트), 충청남도(10퍼센트), 부산(8.9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는 늘 그렇듯이 7월 말~8월 초에 휴가를 가겠다는 사람이 55.3퍼센트에 달했다.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1인당 휴가 비용은 17만7천원.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올 여름 모두 3조6천1백11억원의 관광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조1천5백7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만3천6백94명으로 추정된다.

SNS 등 활용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정보 제공

반면에 외국으로 여름휴가를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작년 한해 동안 1천2백48만8천3백64명이 해외관광을 갔다. 그중 2백45만9천4백65명이 7~8월에 출국했다. 해외관광객의 20퍼센트가 여름휴가

차 해외로 나간 것이다.

이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관광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해외에는 볼거리가 다양해서'라든가 '해외여행 경험이 의미 있고 흥미 있어서'라는 답변이 상위를 차지한다.

여름철 해외휴가객을 국내로 흡수할 경우, 내수진작,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하계 휴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휴가 수요로 인한 혼잡비용을 최소화하고,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인 '365일 행복충전–국내여행'(5~7월)도 진행했다.

지역방문 특별열차 운행도 함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홈페이지·SNS·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체험·녹색관광·지역어울림 등을 주제로 한 민간기업 협력 가족초청 행사, 지역방문 특별열차 운행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및 대기업 임직원들이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거나, 각종 연수·회의를 국내에서 열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에 국내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캠페인만으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국내로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광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여름철 피서지 물가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지역별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중점관리 품목인 숙박업, 요식업, 기타 피서용품 등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특히 피서지의 불법적 이용료 징수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인플레 심리를 틈타 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외식업소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1단계로 해당 업소에 물가안정 협조 요청, 담당 공무원 현장 지도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 등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업종별 직능단체 협회 등에 의한 담합 인상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 주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신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옥외가격 표시판·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선DB

해수욕장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6월 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는 30여만명의 피서객이 몰렸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 등 즐겁고 안전한 휴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중대교통사고(1건의 사고로 인해 사망 2명 이상, 사망 1명 및 중상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는 버스·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휴가철에 사고가 우려되는 전세버스는 7~9월 석 달 동안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받는다.

전세버스 집중점검 등 교통안전대책도 펼쳐

대상업체는 모두 76개(전세버스 57개, 시내·외 버스 15개, 택시 4개) 업소다. 운수업체 주사무소(영업소) 소재지·차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교통안전공단 지사 직원이 업체를 방문해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지난 4~6월 지하철 및 철도 부문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미 실시했다. 이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9일 인근 공사현장 절개지의 토사유입으로 경원선 월계~녹천 구간의 운행이 두절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은 지난 7월 4~15일 철도운행선 인접공사현장 7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청도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교통안전대책을 수립, 진행 중이다. 휴가철을 맞아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계도·단속한다. 고속국도 및 휴가지 주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단속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식당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 G

글·배진영 기자

"어르신! 외출 땐 부채·물병 꼭 챙기세요"

12~17시 사이엔 외출 자제… 온열질환 의심 때는 1339·119에 연락을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됐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여름철 무더위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폭염 대비 건강대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노인돌보미 이정선씨와 전응세씨. 아직도 돋보기가 필요치 않을 만큼 건강하고 동안인 전응세씨는 전화나 방문 같은 관심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다고 말한다.

"아버님! 저 왔어예!"

대구시 달서구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소속 노인돌보미 이정선(54)씨가 달서구 상인동의 상인비둘기2단지 아파트의 전응세(91) 어르신 집을 들어서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매주 한 번씩 홀로 사는 전 어르신을 찾아 건강상태며 생활여건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주선하는 돌보미다.

이씨는 "'어르신'이라고 호칭하면 아무래도 거리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아버님이라고 불러 드린다"고 귀띔했다.

지난 2006년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 만에 아내를 잃은 '아버님'의 '절친'은 화투다. 매일 담요 위에서 만지작거리니 화투 모서리가 하얗게 닳았을 정도다. 지난 2006년 이곳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 온 전 어르신은 "어쩌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도 10원짜리 화투에 핏대들을 세우는 통에 재미없어 못 나가"라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슬하에 4남매가 있지만 매주 와서 어르신의 이것저것을 챙겨 주는 이씨는 또 다른 가족이다. 올 장마가 끝난 이후 가장 더운 날 어르신을 찾은 이씨는 폭염에 대비해 유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알려 드렸다.

"아버님, 더운 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절대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 계셔야 해요."

노인돌보미들도 폭염 비상… 수시로 전화 체크

이씨는 현관문을 열어 놓고 선풍기는 바람이 드나드는 곳에 둘 것, 갈증 날 때 달달한 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말 것, 덥다고 갑자기 찬물을 몸에 끼얹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이씨가 이처럼 전 어르신에게 폭염 주의사항을 알려 드린 것은 최근 폭염으로 전국에서 노인 3명이 사망하는 등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구는 예전부터 여름철 폭염으로 유명한 도시. 특히 달서구는 전 어르신과 같이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대구에서 가장 많다(약 9천2백명). 바로 이곳 비둘기아파트에서도 정 어르신과 같은 동에 홀로 살던 노인이 폭염 중 문을 걸어 잠그고 지내다 사망해

악취가 난 뒤에야 발견된 일도 있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김무현 복지사는 "최근 들어 노인들 가운데 폭염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여름철에는 노인돌보미들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인돌보미 한 명이 돌봄을 맡는 어르신이 규정상 25명이지만 실제로 그 이상의 인원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의 경우도 어르신 27분을 돌보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노인돌보미로 일해 온 이씨는 나름의 폭염대비 노하우도 갖고 있다.

"어르신들께 1천원짜리 접이식 부채를 하나씩 사 드려서 외출할 때 들고 가시라고 해요. 할머니들께는 평소 들고 다니시는 가방 안에 물병을 넣어 외출하시라고 하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상기온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특히 여름철(7~8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4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8백99명이 초과사망하기도 했다. 초과사망자는 65세 이상 인구에서 전년 대비 75.3퍼센트 증가했다. 지난해 폭염 관련 사망은 8건이다.

이처럼 폭염이 새로운 건강위험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올 무더위를 맞아 국민들에게 폭염 기간 중 특히 낮시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할 것을 강조했으며, 폭염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토록 알렸다.

지자체선 '무더위 쉼터' 운영·폭염경보 문자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이 집중되는 12~17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339나 119로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6월 말까지 폭염경보 발령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재난문자시스템에 노인돌보미 정보 등록을 마쳤으며, 시·군·구별로 '무더위 쉼터'도 운영 중이다. 또 노인돌보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여름철 건강관리법과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사나 노인돌보미가 아니어도 작은 관심만으로 폭염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로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시작한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이다. 1:1로 안부 확인 전화를 하는 '사랑잇는 전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해 보살펴 드리는 '마음잇는 봉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현재 32개 기관 2만2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폭염에 방치될 노숙인들의 건강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으로 '노숙인제도개선TF'를 구성하고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오는 9월까지 활동하는 '노숙인 현장대응반'은 역사 주변, 공원, 교각 등지에서 상담활동과 긴급지원에 나선다.

"종일 홀로 TV나 보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 주면 일 년을 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인 비둘기아파트 전 어르신의 절실한 말씀이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폭염 관련 증상과 대처-이럴 때 주의하세요!

어르신들은 더 조심
- 할아버지·할머니는 땀이 잘 안나서 몸이 더 더워짐.
- 특히 혈압이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더 위험함.

이런 날 주의
- 갑작스러운 더위, 높은 기온, 약한 바람, 높은 습도.

열사병과 일사병
- 증상 : 열사병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땀이 나지 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럼증이 있음. 일사병은 피부가 차고 젖어 있으며 이상 의식변화가 옴.
- 대처 : 즉시 119나 1339에 구급 요청하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환자의 체온을 낮춤.

열실신, 열경련, 열부종도 주의
- 증상 : 폭염에 노출돼 일시적 탈수, 근육경련, 전신부종,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대처 :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함. 열부종은 주로 하지에 나타나므로 휴식 시에 다리를 올려줌.

비상연락처

노인돌봄 비상연락처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중앙119구조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기상청 날씨예보 ☎131

서민 위기… 국가적 복지 패러다임 구축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빈곤·양극화문제 해결노력 필요

서민생활의 고단함이 커지며 빈곤층도 늘고 있다. 서민복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퍼주기식 복지'나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복지재정을 늘려야 할 때다. 빈곤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빈곤문제, 사회양극화 문제가 두드러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장밋빛 모습이 그려지지만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해가 갈수록 빈곤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서민복지정책이 취약하다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지난 2000년 10.5퍼센트에서 2009년 18.1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0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층은 3백5만8천 가구, 약 7백만명에 달한다. 특히 아동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율은 더 높다. 아동가구는 전체의 4분의 1 이상, 그리고 노인 가구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빈곤한 상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정책이 정치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념정치의 시대를 넘어 생활정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복지에 대한 논의가 부적절하게 진행되곤 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부족한 복지의 결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지는 일정한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소득이 3만~4만 달러는 돼야 복지정책을 확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논리다. 여기에는, 복지비용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돈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식주 등 직접적인 생활유지와 관련되는 비용이다. 이를 서민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제도의 측면에서 지출하느냐, 각 국민이 개인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니다.

서민가정 개개인에게 이 비용을 능력껏 지출하도록 맡겨 두었을 때, 적절한 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려워지면 사회적 위기와 불안이 증폭된다.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저해된다. 우리의 상황이 현재 그렇다.

국가별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단위 :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극화는 재산과 소득수준을 넘어 교육과 고용, 문화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첨예화시키고 있다. 고용과 결혼, 의료, 보육, 교육 등 제반 측면에서의 사회적 비용 증대가 초래한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의 심화, 국가적 생산력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다.

서민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공공의 책임하에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육비용을 개인과 시장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다.

어차피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비용은 누구의 주머니에서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국민 각자가 시장을 통해 알아서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면 저출산은 피할 수 없다.

서민복지정책의 방향을 지나치게 '서민 각자의 근로의지와 자활'

조선DB

서민복지정책의 방향을 지나치게 '서민 각자의 근로의지와 자활'에 두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시각으로 복지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장면.

에 두고 있다는 점도 되짚어 봐야 한다. 물론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서비스 비용은 공공이 책임져야

최근 부당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장애인의 부모가 자녀의 장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상황에서, '자식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살한 사건도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의지가 매우 강한 나라 중 하나다. 현재의 서민 빈곤이 근로의지의 문제는 분명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제적인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민복지의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이 양극화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일을 강조'하는 전근대적 의식개혁이나 국민을 계도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대처하고 서민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효율성 제고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 서민복지가 당면한 근본문제라기보다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도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민복지의 수준은 일단 절대량 측면에서 너무나 취약하다.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이다.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GDP와 유사한 수준의 시점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현재 빈곤상황이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국가적 서민복지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때다. G

글 ·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영국 · 일본… 가는 곳마다 '반짝반짝'

日프로듀서 "가창력 · 순수함 지닌 아이돌 그룹"… 언론선 "아시아의 비틀스다"

남성그룹 샤이니가 '최초', '최다'라는 수식어로 한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샤이니는 아시아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비틀스의 성지'로 불리는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애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공연을 했으며, 일본에서 첫 싱글 'Replay—키미와 보쿠노 everything(너는 나의 모든 것)'을 발표하며 일본 · 한국 가수들 중 데뷔 싱글이 가장 많이 팔린 가수로 기록됐다.

지난 6월 10, 11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의 '르 제니트 드 파리' 공연장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인 파리'에 참여한 샤이니는 유럽 현지 팬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실제로 프랑스의 K팝 팬사이트(www.kpop.fr)에서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인 파리' 관람객에게 'SM타운 파리공연에 출연한 그룹 중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뽑아달라고 요청한 결과 총 2천2백38표 중 샤이니가 8백72표(38퍼센트)를 얻어 1위로 꼽혔다.

6월 19일 영국 런던 애비로드 스튜디오 앞에서는 샤이니의 인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샤이니는 영국 '대중음악의 성지(聖地)'로 통하는 애비로드 스튜디오에서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라이브 공연을 했다.

예술과 팝의 본고장 영국마저 사로잡은 매력

오후 3시40분(런던 현지시각)에 열린 이날 무대는 언론과 음반 관계자 등만 참석하는 비공개 공연이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현지 팬들이 몰려 공연시간 즈음에는 1천여명이 모였다.

파란 눈의 현지 팬들은 "We want SHINee(우리는 샤이니를 원해요)!"를 외치며 샤이니를 연호했고, 한글로 된 플래카드와 태극기가 이들 손에서 펄럭였다. 비틀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낙서가 가득한 애비로드 스튜디오 벽에는 샤이니를 흠모하는 팬들의 낙서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샤이니가 현지 팬들의 성원에 답하기 위해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자 1천여명이 내지르는 환호성으로 애비로드 일대가 흔들렸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현되고 있다. 막연하게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루지 못할 꿈도 아닌 것 같다."(키)

이날 무대는 일본 데뷔를 기념하는 '쇼케이스 이벤트'로, 샤이니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일본 EMI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영국 EMI 본사도 적극 후원했다. 일본 언론은 6월 21일자에 일제히 "샤이니의 애비로드 쇼는 아시아의 쾌거"라며 높이 평가했다.

일본에서의 샤이니 활약은 눈부시다. 2010년 12월 26일 도쿄 국립 요요기경기장 제1체육관에서 벌인 첫 일본 콘서트 '샤이니 월드'는 샤이니의 폭발적인 인기를 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첫 싱글 'Replay—키미와 보쿠노 everything'으로 일본 음악시장에 정식으로 데뷔한 샤이니는 일본에서 역대 한국 그룹 데뷔 싱글 사상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신한류 스타로서의 파괴력을 입증했다.

일본의 권위 있는 음반차트 오리콘에 따르면 'Replay—키미와 보쿠노 everything'은 발매 일주일 만에 약 9만1천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오리콘 싱글 주간차트에서 2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 그룹

뛰어난 음악과 스타일로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의 '팬심'까지 사로잡고 있는 아이돌 그룹 샤이니.

의 일본 데뷔 싱글 판매량으로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번 싱글은 발매 전부터 첫 출하량만 12만 장을 돌파해 대박 행진을 예고했다.

샤이니는 오는 7월 22일 후쿠오카, 23일 고베, 27, 28일 양일간 도쿄, 8월 8일 삿포로, 11일 나고야까지 일본 전국을 순회하는 '샤이니 재팬 데뷔 프리미엄 리셉션 투어'를 통해 더욱 일본 팬들과 가깝게 만날 예정이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정도인 줄로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팬들의 반응을 접하고 스스로 많이 놀랐어요. 우리 음악이 세계시장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온유)

조선DB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인 파리'공연에 나선 K팝 스타들을 마중하기 위해 파리 드골공항에 나온 팬들. 손에 샤이니란 응원 문구가 들려있다.

'최고'·'최다' 일본 오리콘의 역사를 새로 쓰다

요즘 아이돌 그룹이 데뷔와 동시에 해외진출에 나서기도 하지만 샤이니는 국내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기회를 봤다. 3년의 활동으로 국내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힌 샤이니는 일본 공략에 나섰다.

샤이니가 짧은 기간에 최고의 한류스타로 떠오른 것은 이들의 음악성과 남다른 스타일 때문이다. 2008년 데뷔하면서 '컨템퍼러리 밴드'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샤이니는 기존 아이돌 그룹에서 볼 수 없었던 음악과 패션 스타일로 가요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뛰어난 가창력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누나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유명 패션디자이너 하상백의 고급스런 의상,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이런 매력은 고스란히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다. 유럽 팬들은 샤이니를 두고 "음악이 좋고 스타일리시한 모습이 너무 좋다. 유럽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룹"이라고 입을 모았다. 프랑스의 K팝 팬사이트(kpop.fr) 회원들도 샤이니의 가장 큰 매력으로 "귀여움"을 꼽았다.

샤이니의 일본 소속사 EMI뮤직 재팬의 이사이자 일본 톱가수 우타다 히카루의 총괄 프로듀서인 미야케 아키라씨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샤이니는 기존의 한류층이었던 30대에서 50대를 넘어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폭발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가창력과 순수함, 창의력 등 향후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가진 보기 드문 남성 아이돌 그룹"이라고 평가했다.

강점인 음악과 스타일 내세워 새로운 시장 창출

샤이니의 글로벌 인기는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서도 잘 드러난다. 7월 6일까지 약 2천4백39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 중인 '링딩동' 뮤직비디오, 2천78만 건의 '루시퍼' 뮤직비디오는 북미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조회 수를 보이고 있으며, 몽골과 남미, 러시아, 호주에서도 비교적 높은 조회 수를 보이고 있다.

샤이니의 미래는 더욱 밝다. 페루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K팝 아이돌 인기투표에서 1위로 꼽히는 등 남미에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샤이니의 음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의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민호) G

글·김원겸 (스포츠동아 연예부 기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한국에서 3주간 기술연수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UAE 기능올림픽선수와 심사위원들.

한국연수 온 아랍에미리트 기능올림픽대표단

"기대보다 많이 배워… 원더풀 코리아"

한국의 사상 첫 원전수출국, 세계4위 원유매장국 아랍에미리트(UAE). UAE 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와 심사위원 14명이 지난 7월 4일부터 약 3주간 우리나라를 찾아 7개 직종에서 기술연수를 했다. 오는 9월 런던 국제기능올림픽에 대비해 '기능 강국' 한국의 우승 노하우를 배우려 이들이 구슬땀을 흘린 현장을 찾아봤다.

서울 종로구 흥인동 성동공고 내에 위치한 한국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훈련소. 이곳에서는 정보기술, 옥내제어, 컴퓨터정보통신, 웹디자인 등 4개 직종의 아랍에미리트(UAE)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과 함께 기능올림픽 사전과제를 수행하며 준비 마무리에 한창이었다. UAE 기술위원들도 우리나라 기술위원들에게 선수훈련 및 대회준비 요령을 일대 일로 지도받았다.

한국은 오는 9월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31개 전 종목에 32명이 출전하지만, UAE는 7개 종목에만 출전한다. 이번 연수에 7개 종목 대표들이 다 참가한 것이다. 성동공고에서 연수 중인 4개 직종 외에 자동차정비는 현대자동차 남부연수원(서울), 용접은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경남 거제), 기계설계캐드는 삼성테크윈 지식정보연수원(경남 창원)에서 각각 연수했다.

7개 직종 선수·심사위원 14명 3주간 구슬땀

UAE 선수단 리더 격인 타하 자심(43) 기술위원(옥내제어 직종)은 "이번 한국 연수를 통해 원하던 것 이상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일정표를 받아봤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꽉 짜인 일정에 놀랐다고 했다. 중동국가들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오후 3시 이후엔 낮잠을 자거나 쉬는 것이 일반적이란 것.

그러나 막상 한국에 와서 한국 선수단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자심 위원은 "다들 우리를 열정적으로 도와줬다. 그게 '푸시(push)'가 돼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 금세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훈련한 지 11일째이던 지난 7월 14일,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 옥내제어 직종 오마르 모하메드 알 마주키(21) 선수는 한국 대표 황선정(20·삼성중공업) 선수와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모하메드 선수는 "모든 것이 좋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며 "UAE 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다부진 각오를 말했다.

옥내제어 직종에서는 우리나라 황선정 선수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지만, UAE도 지난 2009년 캐나다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을 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올 9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라이벌일 수도 있는 황 선수와 모하메드 선수가 이렇게 같은 방에서 나란히 같은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세계 최강 한국대표팀의 '특훈'에 만족

다른 연습실에서는 정보통신, 컴퓨터 통신, 웹디자인 등 3개 직종의 UAE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의 도움을 받으며 모의 실전 프로젝트와 씨름 중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파견한 통역요원들이 양국 선수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웹디자인 직종의 사디 아윱(37) 기술위원은 "연수기간이 짧아 선수들은 기본지식보다 실전 응용력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뒀고, 기술위원들은 한국 기술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선수를 훈련시키고 우승하는지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윱 위원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배워간다. 다음에는 6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고 싶다"고 말했다. 웹디자인 직종 대표인 마라완 압둘라 알 만수리(18) 선수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통신 직종에서 양국 선수단의 기술 격차가 컸다. 정보통신 연수는 한국 선수들이 UAE 선수들에게 실전 노하우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를 지원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 국제교류팀 이미숙 과장은 "우리 선수들이 참 열심히 도와준다. 행여 우리 선수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UAE 선수단 리더인 자심 위원은 "한국에 오기 전 가장 걱정한 것이 음식과 문화적 차이였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덕분에 편안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UAE 기능올림픽대표선수들이 컴퓨터정보통신분야 과제를 풀고 있다.

UAE 선수들은 음식이 입에 안 맞을 것을 우려해 통조림을 잔뜩 싸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통조림들은 호텔방에 방치되고 말았다. UAE 선수들이 명동 구경을 나섰다가 입맛에 딱 맞는 아랍음식 전문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스무 살 전후인 UAE 선수들은 기술위원들보다 훨씬 한국관광에 적극적이다. 일과시간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도 둘러보고 왔다는 압둘라 선수는 "논현동의 헤어숍에서 한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엄마에게 요청해 두바이에 지점을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

코엑스·헤어숍 방문 등 틈틈이 관광도

이렇게 '통 큰' 말이 나올 만한 나라가 UAE다. 인구 4백만명의 UAE는 세계 4위의 원유매장량을 가진 1인당 국민소득 5만5천 달러의 중동 부국. UAE 하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원전수출로, 한국은 지난해 12월 47조원 규모의 UAE 원전을 수주했고, 이는 사상 첫 원전수출로 기록됐다.

지난 1월에는 우리나라의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가 UAE로 출국해 전투위험이 없는 비분쟁 지역에서 상대국과 훈련 경험을 나누는 새로운 군사협력 모델이 됐다. 같은 달 청해부대가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국내로 압송할 당시 UAE는 선뜻 왕실 전용기를 내주며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우애를 보여줬다.

이렇게 나날이 인연을 쌓아온 UAE의 기능올림픽 선수단은 7월 22일 수료식을 갖고 이튿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제 한국과 UAE는 기능올림픽 출전을 계기로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 사진·이경민 기자

한국기업 '해외 알림이' 꿈꾸는 성수경씨

"중소기업들 세계 진출 돕고 싶어요"

많은 G20세대가 글로벌 세계로 나가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세계로 나갈수록 한국·한국인에 대해 더욱 소중함을 느끼고, 한국을 바로 알리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청소년 시절을 해외에서 보내며 '독도 알리기' 등을 통해 한국 알림이로 활동했으며, 이제 중소기업의 글로벌 알림이가 되고자 하는 G20세대 젊은이가 여기 있다.

"유학을 간 뒤에 나의 조국 한국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우게 됐어요.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생각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캐나다 어학연수를 떠나면서 글로벌 세상에 눈을 뜨고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성수경(22·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

중소기업 해외 알림이를 희망하는 성수경씨는
2007년 미국 뉴욕주 비숍 맥건-머시 다이오세산 고교 졸업
2010년 미국 미시간대 아시아학과 조기 졸업

그는 미시간대 재학 시절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한국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서 활동했다. 즉, G20 경제아카데미(2011·조선비즈 주최), Global Korea forum(2011·미래기획위원회), 한미학생회의(KASC·2010, 2011), 독도 아카데미(2009) 등 국내외에서 열린 대학생 대상 포럼 등에 참가했다. 2010년 여름 미시간대를 조기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온 후 미래 설계에 힘쓰고 있다.

어린 나이에 글로벌 경험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1988년 서울올림픽때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승리와 희망을 외치던 시기에 태어났어요. 중학교 입학 후 우연히 아버지 친구분의 제안으로 2002년 캐나다로 어학 연수를 갔어요. 1년 계획이 2년으로 늘어났는데, 한국인은 한국 문화를 체득해야 한다는 부모님 설득에 귀국해 검정고시를 보고 2004년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욕심에 유학을 결심했고, 부모님을 설득해 2005년 다시 미국 고등학교로 유학을 떠났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저를 나라 밖으로 이끈 것 같아요."

대학시절 이후의 여러 활동 중 '독도 아카데미'가 눈길을 끄네요.

"2009년 '독도 아카데미'에 참가했어요. 독도 아카데미는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키워 주고 왜 독도가 한국 땅인지, 그 역사적 근거는 무엇인지, 국제법상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죠.

2백명의 학생이 15개 팀을 구성해 두 달 동안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당연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토론과 발표를 했어요. 당시 저는 팀장으로 활동하며 리더십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독도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독도 관련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다른 대학생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에도 놀랐어요. 또 저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보기도 하고, 애국심을 느낀 벅찬 경험이었어요."

유학 시절 느낀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말해 주세요.

"한국 이미지가 점차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아요. 2010년 한미학생회의에 참가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과 인터넷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미학생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성수경씨다.

조사 결과를 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일단 '한국' 하면 미국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전쟁, 안보, 핵무기'였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어요.

삼성과 LG 같은 세계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이 기업들을 한국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품 홍보도 중요하지만 국가브랜드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제가 그 일에 일조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떤 식으로 한국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선 한국 내에서 한국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지난 30, 40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편, 같은 기간에 우리 국민은 최대한 '한국'이란 것을 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창(唱)과 같은 전통문화가 미국의 팝송이나 오페라보다 낯설게 됐죠. 자랑스러운 경제발전사만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한국'이란 정체성과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먼저 무료로 열리는 한국 전통문화 공연들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이 공연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같은 공연이라도 더 좋은 음향기기, 더 좋은 공연장에서 보게 되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봐요. 또 한국적이면서도 세계화할 수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야 해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지요. 아무래도 국가가 더욱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점과 자금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 홍보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연결지을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는 마케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요.

일단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마케팅 관련 MBA 과정을 밟고 싶어요. 무엇보다, 무엇을 하든 자랑스러운 '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영국 시인 찰스 램은 자기 이름을 향하여 '나의 행동이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나의 고운 이름이여'라고 했는데, 저 역시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계속 열심히 뛸 거예요." G

글 · 민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이미숙 · 김남주 등 유명 스타의 스타일리스트 김성일

"옷 잘 입는 법? 자신의 스타일 찾으세요"

MBC 드라마 〈내조의 여왕〉에서 배우 김남주의 굵은 웨이브 파마와 로맨틱한 옷 스타일은 많은 여성이 따라 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천지애(김남주) 스타일'을 만들어 낸 이는 다름 아닌 남자다. 여자보다 더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김성일 스타일리스트를 만나 봤다.

정형화

김성일씨는 "연예인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그것에 맞게 스타일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훔치고 싶은 스타들의 패션은 김성일, 그의 손에서 나왔다. 김성일 스타일리스트는 그동안 이미숙 김남주 손예진 김사랑 정우성 등 대한민국 최고 스타들의 스타일링을 담당해 왔다. 올 초에는 한 케이블방송의 〈패션 오브 크라이 시즌2〉에 출연해 일반인 대상으로 스타일 멘토를 담당하며 대중적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동안 많은 배우의 스타일링을 담당하셨는데요, 대스타들과의 작업은 어땠나요.

정말 즐거웠어요. 흔히 스타라고 하면 까다로울 거 같은데 의외로 소탈하고 정이 많아요. 김남주 씨와는 11년째 함께 작업하고 있어서 가족 같은 사이에요, 이미숙 씨와는 영화 〈정사〉 때부터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정말 정이 많은 분이세요.

손예진 씨는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인데 드라마 〈개인의 취향〉을 같이 작업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 신경 쓰는 모습에 왜 그녀가 최고의 배우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정우성씨 역시 스태프를 잘 챙겨 주는 따뜻한 배우예요. 다른 사람이 의상을 지적해도 스타일리스트의 선택을 믿고 그대로 따라 주죠.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마음까지 따뜻한 분이세요.

여배우와의 작업이 많은 편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네 분의 고모가 계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고 중·고등학교 때도 주변에 여학생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여자에 대해 잘 알게 되었죠. 남들은 제가 여자보다 여자의 심리와 취향을 잘 안다고 하더군요.

스타일리스트 김성일님 평가하는 베스트 드레서는 누구인가요.

옷 잘 입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효리씨를 꼽을 수 있어요. 이효리씨는 단순히 옷만 잘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멋있는 분이에요. 어떤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콘셉트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더라고요.

방송출연도 많은 편인데, 얼마 전 출연한 〈패션 오브 크라이〉도 많은 화제가 되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는 변화가 정말 필요한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 의상부터 메이크업까지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로 바꿔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분들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중에게 의상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이 잦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연예인이 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의 옷, 누구의 머리가 유행하면 무조건 따라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그것에 맞게 스타일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에 대한 관심이 어릴 적부터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내성적이었지만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 책을 많이 읽었죠. 초등학교 때는 만화책을 많이 읽었는데 한동안은 〈베르사유의 장미〉 〈스완〉 등 순정만화에 푹 빠져 지냈어요. 특히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오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옷이 너무 예뻐서 습자지에 대고 그려도 보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하얀 도화지에 직접 그려 다양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옷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겨났죠.

혹시 어릴 적 옷차림이 특이한 편이었나요.

저희 어머니가 패션에 있어서 좀 남다른 분이셨어요. 여름철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긴 바지에 반팔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게 반바지에 긴소매의 옷을 입히셨어요. 거기에 타이즈와 구두까지 매치해 주셨죠. 지금이야 그렇게 입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지만 당시만 해도 엄청 낯선 옷차림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어머니께 친구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하니까 "너는 왜 남들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러니? 이런 옷차림이 예쁘고 남들과 차별화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입히시더라고요. (웃음) 어릴 적부터 남들과 다르게 입다 보니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옷을 입게 됐죠.

처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의상과 헤어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익숙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스타일리스트 하면 연예인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사람을 떠올려요. 물론 그 일도 하지만 이 밖에 잡지,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합니다. 이때는 테마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의상부터 헤어, 메이크업까지 모든 것을 고민해야 하죠. 한마디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비주얼 디렉터라 할 수 있겠네요.

MBC

드라마 〈내조의 여왕〉속 김성일씨가 만든 '천지애(김남주) 스타일'.

보통 의상에 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 편이세요.

영화, 연극, 발레 등 다양한 문화장르에서 얻어요. 길을 걸으며 산책하면서도 얻죠. 책을 통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편인데요.

스타일리스트로서 상황에 맞는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만 공부하지 않고 다양한 것을 접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점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한 자질이 따로 있나요.

스타일리스트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의뢰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율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우선시돼요.

사실 스타일리스트를 하려면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지만 인문학적인 소양이 가장 필요한 거 같아요. 일단 대화가 통해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요새는 관련 학과도 많이 신설돼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여름철 옷차림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은데요. 남들과 다르게 보일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이 슬리퍼를 신고 반팔, 반바지를 입는데요. 청바지에 흰 티를 입더라도 포인트를 주는 편이 좋아요. 여자의 경우 기본 옷차림에 뱅글 하나만 더해도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남자는 브이넥 티셔츠에 조끼 하나만 입어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이것저것 너무 많은 아이템을 하기보다는 작지만 포인트를 살린 아이템을 활용해 나만의 스타일을 창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G

글 · 정병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3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은 참신한 시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이슈, 정책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이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문화놀이터(culturenori.tistory.com)에서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다.

새만금방조제의 메가리조트 구역(사진 오른쪽)에 오토캠핑장 등 레저시설이 들어선다. 새만금방조제를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개방’ 새만금, 밤바다가 부른다

완전개통 후 누적관광객 1천만 돌파… 오토캠핑장·록공연 등 즐길거리 넘쳐

새만금방조제가 공연장과 레저 시설이 잇달아 들어서며 문화, 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관람객들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방조제가 완전 개통된 후 약 1년2개월 만인 지난 7월 5일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역대 누적관광객은 2천6백만명을 돌파했다. 새만금, 그곳이 특별해지고 있다.

새만금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다. 기네스북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았다. 그 자체로도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개통된 후 1년2개월 만에 관광객 1천만명을 돌파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33.9킬로미터의 방조제가 연출하는 장관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다.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공연장, 오토캠핑장, ATV(4륜 오토바이) 체험장, 수상레저시설 등 다채로운 문화·레저 공간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2일에는 주간에만 통행할 수 있던 방조제 도로를 24시간 전면 개방했다. 방조제에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머물다 가도록 붙잡는 ‘새만금의 유혹’이 강해지고 있는 셈이다.

새만금방조제는 처음부터 관광자원적인 측면이 고려돼 설계됐다. 무엇보다 우수한 전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졌다. 방조제보다 도로가 높아서 툭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드라이브하면서 또는 걸으면서 방조제 바깥의 바다와 안쪽의 호수를 막힘 없이 바라볼 수 있다. 방조제 곳곳에는 전망대를 설치해 더 큰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애석한 것은 1호방조제였다. 도로가 방조제보다 낮아 갑갑했다. 관광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높여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도로를 높이는 공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공사가 마무리돼 도로가 열렸다. 눈앞이 환해졌다.

공사가 끝나면서 도로개통 시간도 확 늘어났다. 낮에만 개방하던 도로를 24시간 통행할 수 있게 했다. 안전상 이유로 그동안에는 야간통행을 금지했던 것이다. 밤바다를 가로지르는 색다른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다양한 레저시설 갖추고 문화·관광 중심지로

24시간 개방과 함께 다양한 레저시설도 개장했다. 신시도와 야미를 잇는 3호방조제의 ‘메가리조트 개발부지(1백95헥타르)’에 차량 1백대를 수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5.3킬로미터 거리의 ATV체험장이 문을 열었다.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새만금방조제를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선DB

조선DB

상설공연장 주변에선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도자기 만들기 체험 장면(왼쪽)과 창작공연인 〈아리울 아리랑〉의 한 장면.

단기간에 기대 이상의 관광객들이 새만금방조제를 다녀갔지만 속으론 고민이 적지 않았다. 관광객이 경제적 효과를 내려면 머물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방조제는 그저 들러 가는 곳이었다. 방조제 외에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물론, 새만금에도 관광·레저를 위한 개발계획이 있다.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이 그것이다. 이곳엔 호텔, 상업시설,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마리나항, 아쿠아리움 등 대규모 복합해양리조트가 들어선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2018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번 개장한 레저시설은 그때까지 관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8월 공연테마는 '시끌벅적 요란스럽게 놀다'

문화공연시설도 조성했다. 더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지난 5월에 4백80석 규모의 공연장이 문을 열었다. '아리울 아트홀'이 그것이다. 이곳에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연이 열린다. 주말에는 창작공연이, 주중에는 기획공연이 관객들을 맞고 있다. 창작공연인 〈아리울 아리랑〉은 이 공연장을 위해 기획됐다. 전통 판소리인 수궁가와 심청가에서 모티브를 얻은 뮤지컬이다. 바다라고 하는 새만금의 자연환경적 요소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서재영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주무관은 "〈아리울 아리랑〉은 처음부터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새만금만의 특징을 활용해 차별화한 공연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기획됐다"며 "초창기지만 주중엔 2백석, 주말에는 2백50~3백석의 좌석이 찰 정도로 반응은 좋다"고 전했다.

주중의 기획공연 프로그램은 매월 새로 편성된다. 달마다 테마를 정하고 이에 맞는 공연팀을 초청하는 방식이다. 7월에는 '아리울, 세대를 뛰어넘어 문화를 공유하다'를 주제로 국악과 크로스오버 공연이 열렸다. 8월의 테마는 '아리울, 시끌벅적 요란스럽게 놀다'다. 말 그대로 여름밤에 어울리는 록공연 등 시끌벅적한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공연장 주변에선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열린다. 바람개비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등이 열리고 있다. 공연은 하루 1회지만 체험 이벤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느 때고 즐길 수 있다. 서 주무관은 "새만금방조제 24시간 개방에 맞춰 야간공연과 이벤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변형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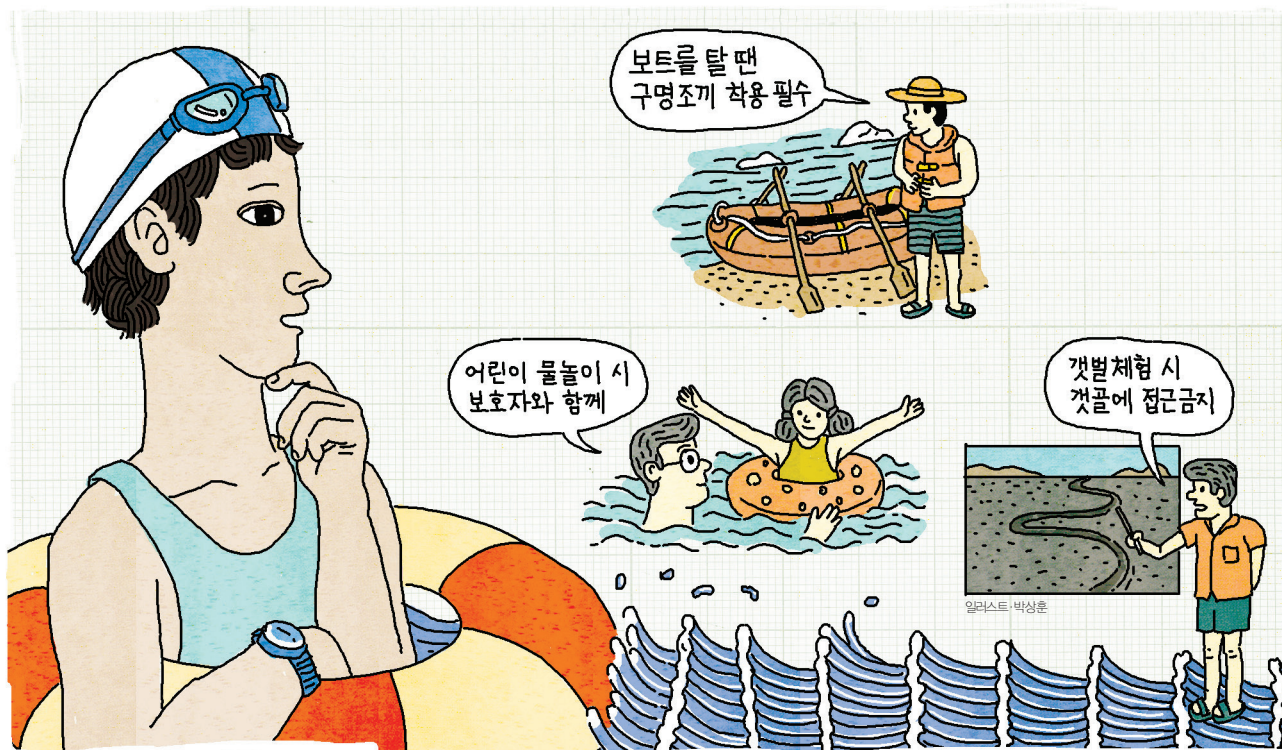
문의 새만금상설공연장 '아리울 아트홀'
www.ariulart.com / www.새만금상설공연.com

기록으로 보는 새만금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바다 위 만리장성'

새만금방조제의 별칭은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다. 그만큼 장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새만금방조제는 규모 그 자체만으로도 한 번쯤 들러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먼저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총 연장 33.9킬로미터로, 종전 기록인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보다 1.4킬로미터 길다. 폭은 최대 5백35미터에 평균 2백90미터, 높이는 최대 54미터에 평균 36미터에 이른다.

공사 규모도 엄청났다. 2조9천억원이 투자됐고 연인원 2백47만명이 투입됐다. 방조제 건설에 쏟아 부은 흙과 돌은 총 1억2천3백만 톤으로 경부고속도로 4차로를 13미터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양이다. 이를 통해 만든 간척지의 규모는 서울의 3분의 2, 전라북도 전주시의 2배에 이른다.

일러스트·박상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

"갯벌체험때 갯골 넘어가지 마세요"

장마가 가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다. 전국 해수욕장, 계곡, 수영장은 바캉스 인파로 붐빈다. 물놀이 사고 소식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간단한 안전수칙만 알아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박근호씨는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과 사전 준비운동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여름철(6~8월) 해수욕장·산간계곡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은 모두 5백72명으로 교통사고, 화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5백72명 물놀이로 사망

2009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물놀이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물놀이 사망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물놀이 관리지역에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는 경기도 등 10개 시도, 88개 시군구 물놀이 관리지역 3백45개소에서 운영한다. 구명조끼를 비롯해 고무튜브 및 구명환 등도 무료로 대여한다. 현장에서는 안전요원이 직접 안전한 물놀이 즐기기와 구명조끼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물놀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명조끼 입기 홍보와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글·박근희 기자

물놀이 10대 안전 수칙

1 수영 전 손, 발 등 경련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운동 실시
2 입수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
3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한다.
4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다. 갑자기 깊어질 수 있으니 안전구역 내에서 수영한다.
5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조를 삼가야 한다.
6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는다.
7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8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9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10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어린이 물놀이 안전수칙

-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히고 접지력이 좋고 쉽게 벗겨지지 않는 신발(아쿠아슈즈)을 신긴다.
-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 피부가 연약해 자외선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되도록 긴팔을 입히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준다.
- 30분 물놀이, 10분 휴식 등 시간을 정해 놓고 물놀이를 한다.
- 장시간 물놀이는 탈수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휴식시간에는 수분을 보충한다.
- 보호자 시야 내에서 물놀이 활동을 하도록 교육하고, 신발이나 물놀이 장비가 떠내려가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물놀이 상황별 대처법

해수욕&계곡 물놀이

- 체력의 소모가 적게 편안한 기분으로 수영한다.
- 머리는 언제나 수면 상에 내밀고 있어야 한다.
-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중지해 있으면 자연히 떠오른다.
-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간만 때의 조류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 거센 파도로 인해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한다.
- 수초에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다 보면 수초가 헐겁게 된다. 이때 털어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
- 경련은 물이 차거나 피로한 근육에 일어나기 쉽다.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대퇴 부위에서도 발생한다.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했을 때는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온다.
- 계곡에서는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으로 야영장을 택하고 낙석 위험 및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인지 확인한다.

갯벌체험

- 발에 맞는 장화, 긴팔옷 등 갯벌체험에 맞는 복장을 한다.
- 갯벌체험이 가능한 지역인지 알아본 후 체험 가능 지역 내에서만 체험을 한다.
- 어민들이 갯벌 출입을 위해 만들어놓은 진입로를 이용해 출입한다.
- 조석 시간을 미리 확인한다.
- 갯벌에 갯골이 있는 경우 갯골을 넘어가지 않는다. 갯골은 밀물 시 먼저 차오르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져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갯벌에 발이 깊이 빠진 경우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기어나오며,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급한 경우 119의 도움을 받는다.
- 갯벌에 맨발로 들어갈 경우 어패류의 패각 등이 있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 갯벌체험 시 갑자기 안개가 낄 경우 만조시간과는 관계없이 즉시 갯벌에서 나오고 방향을 잃었을 경우에는 갯벌에 조류로 인해 생긴 물결모양 결(연흔)의 방향을 살펴보고 경사가 완만한 연흔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면 육지 쪽으로 나올 수 있다.

수상스포츠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는 필수로 착용한다.
-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한다.
- 장비 점검을 생활화한다.
-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는 레저 활동을 금하고, 야간레저 활동 시에는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야간 조난신호장비, 전등 등을 갖춰야 한다.
-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안쪽은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구역이므로 진입하지 않는다.
- 보트탑승 시 보트의 힘은 견인줄에 집중되므로 몸에 감기거나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래프팅

- 출발 전 코스, 안전수칙, 장비 등을 확인한다.
- 래프팅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 구명조끼와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고 벗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는다.
- 튜브 사이 또는 보트 안의 로프에는 발이나 손을 끼우지 않는다.
- 보트와 보트 사이 간격은 약 20~30미터를 유지한다.
- 보트 속의 밧줄을 느슨하게 두지 않도록 한다.
- 보트가 뒤집혔을 땐 다리를 약간 구부린 채 발을 수면 가까이로 올려준다. 몸을 물살과 같은 방향으로 하고 전방상황을 살피면서 물의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몸을 맡긴다. 보트가 전복돼 떠내려갈 때에는 보이지 않는 물속의 거친 바위 등에 의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다리에 힘을 주지 않는다.

물놀이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처 ☎119(해상 122) ☎1588-3650
조석 시간 확인 국립해양조사원 www.nori.go.kr

조선조 궁궐 여인들의 삶 다룬 추리극 〈궁녀〉

한 사람만 바라보는 1대 5백 '비대칭 인생'

조선시대 구중궁궐 속에서 살아간 궁녀들의 엄혹한 삶과 숙종대 장희빈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김미정 감독의 영화 〈궁녀〉(2007년 작)는 매우 잘 짜인 추리극에 공포를 보탠 수작이다. 조선시대 궁녀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의 삶의 종착역은 어디였을까.

일러스트·신용호

영화는 궁녀 월령(서영희 분)의 자살사건에서 시작한다. 궁녀 출신으로 의녀가 된 천령(박진희 분)은 월령의 시신을 검안하다가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살인이라는 의혹을 품게 된다.

월령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천령은 궁궐을 동분서주 헤집고 다니며 점점 진실에 다가가지만 그 진실은 그야말로 일개 궁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성을 저버려야 했던 천령의 슬픈 과거와, 궁녀들의 행동과 입단속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감찰상궁(김성령 분), 권력다툼 속에서 왕을 속이고 인간성을 희생하며 왕자를 만드는 희빈(윤세아 분)과 월령, 심상궁(김미경 분)의 이야기가 섞여 들면서 영화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진다.

자살로 위장된 교묘한 살인의혹 파헤쳐

영화는 남성이 배제된 궁궐 속, 희빈부터 의녀의 제자까지 여자들만의 조직이 만들어 내는, 견고하지만 잔혹한 질서와 더불어 그 속에서 서로 묵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절대 깨버릴 수 없는 단단한 연대를 그리고 있다.

영화는 재미를 위해 궁녀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다소 과장하기는 했지만, 조선시대 궁녀들의 실제 삶도 영화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궁녀란 왕족을 제외한 궁중의 모든 여인들의 총칭이다. 상궁(尙宮)과 나인(內人)을 비롯해 그 아래 하역(下役)을 맡은 무수리(水賜)·방자(房子)·의녀(醫女) 등도 모두 궁녀에 속한다.

궁녀들은 대개 신분적으로 중인 계급이 많았지만, 후대로 올수록 그 삶이 한스럽다 하여 민간에서는 딸을 궁녀로 들이는 것을 피했다고 한다. 대개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 궁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궁녀가 되는 계층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다만,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지밀과 옷을 만드는 침방, 수를 놓는 수방 궁녀의 경우는 중인 출신에서 많이 뽑았고 그 외에는 상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궁녀의 아래에 있는 무수리나 각심이, 방자 등에는 노비 출신도 있었다.

조선시대 궁녀들은 궁에 들어가면서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귀머거리·벙어리·장님이 될 것을 맹세하며, 평생을 왕의 잠정적 아내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았다.

영화에서 가장 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쥐부리 글려'는 실제로 섣달 그믐날 궁궐에서 궁녀들을 모아놓고 했던 행사였다. 조선시대 궁녀들은 대개 5~10세 사이에 궁녀 후보로 궁궐에 들어가 궁녀가 될 교육을 받고 평생을 궁궐에서 보낸다.

다른 남성과의 관계는 왕에 대한 배신행위

조선시대 궁녀는 대개 5백명 전후였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여인들이 모인 데다 국가권력의 정점인 왕을 모시는 집단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쥐부리 글려'는 일년에 한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궁녀들의 입과 행동을 단속하려는 취지에서 행해졌다.

그 내용은 칠흑같이 어두운 대궐 뜰에 애기나인들의 입에 떡을 물리고 수건으로 입을 막게 한 후 한 줄로 세우고 입 앞에다 횃불을 들이대며 '쥐부리 글려 쥐부리 지져' 를 외치며 위협하는 것이다. 이는 왕비가 모든 내명부(왕비 아래 후궁과 상궁, 나인을 포함한 궁궐 내 모든 여인들)를 거느리고 나와 '참관'함으로써 궁궐 내의 기강을 세우고자 하는 취지였다.

궁녀는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가 15년 정도가 지나면 관례를 올리고 나인이 되어 정식 궁녀가 되는데, 이 관례라는 것이 신랑 없는 결혼식인 셈이었다. 관례를 올린 궁녀는 왕이 취하든 취하지 않든 왕의 여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기에 다른 남성과의 관계는 왕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되어 극히 엄하게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 끓는 청춘의 궁녀들 중에는 내시나 궁을 드나드는 별감 등과 남몰래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중에는 왕족인 종친과 사랑을 나누는 궁녀도 있었다. 영화의 배경이라 짐작되는 숙종대에도 실제 궁녀와 종친 간의 연애스캔들이 터져 큰 정치적 사건이 된 적이 있었다.

조선DB

영화 〈궁녀〉는 조선시대 궁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궁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숙종의 5촌 당숙인 복창군과 복평군 형제가 궁녀 김상협과 내수사 여종(궁녀들을 보필하는 각심이나 방아이로 추정됨) 귀례와 관계를 가지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홍수의 변(궁녀의 옷소매가 붉다 하여 홍수라고 함)이라고 하여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의 주도로 밝혀졌는데, 서인들이 남인을 몰아내는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법전 〈속대전〉에도 '궁녀가 외부 사람과 간통하였을 경우 남녀 모두를 부대시참한다(宮女通姦外人者 男女皆不待時斬)'는 조항이 있고 정조대에도 왕이 직접 궁녀들의 행실을 질책하며 엄히 단속할 것을 명하는 것을 보면 궁녀의 연애 스캔들은 제법 자주 일어났던 것 같다. 영화 속에서 천령을 임신시킨 뒤 버리고 다시 벙어리 수방 궁녀 옥진(임정은 분)을 유혹하는 대비의 외조카 정랑 이형익(김남진 분) 같은 관리도 아주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성 못잖은 위계질서와 권력을 향한 암투

궁녀들은 부서의 고하에 따라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정해지고 각 부서끼리의 알력도 만만치 않은 등 남성들의 관료조직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고, 나아가 음지에서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기도 하였다.

영화에서 세자가 되는 희빈의 아이에 대한 비밀을 궁녀들이 피로써 묵계함으로써 지켜 나가는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G

글 · 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조선DB

고요한 자연속에서 즐기는 명상은 마음까지 평화로워진다. 충남 공주의 영평사(왼쪽 사진)와 전남 해남의 미황사에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명상에 빠져있다.

비우세요… 그러면 채워집니다

'자연건강식도 먹고 영혼의 양식도 얻고'… 산사 템플스테이·수도원 피정 인기

며칠 동안 직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심신의 피로가 풀릴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체적 쉼을 넘어 영혼의 휴식을 위한 쉼터가 인기다. 영적 쉼으로 이끄는 산사 템플스테이와 수도원 피정을 소개한다.

현대인의 피로는 육체만이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리 피로를 해소해야 비로소 육체도 가뿐해지곤 한다. 그래서일까. 매년 육체적 쉼을 넘어 영혼의 휴식을 위한 쉼터를 찾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 자리 잡은 불교 사찰과 가톨릭 수도원이 심신의 피로를 날려버리고 싶은 도시인들을 위해 영혼의 휴식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참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산사와 수도원은 외적인 여행이 아니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안내한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모든 것을 밖에서만 갈구하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자기'를 깨닫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더 나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행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배포한 '올 여름 템플스테이' 계획에 따르면 시행 사찰은 1백18개로 지난해보다 9개소가 늘어났고,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휴가 시기와 취향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1백18개 사찰서 여름 템플스테이 시행

멀리 가기 부담스러운 수도권 거주자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와 경기도 고양의 흥국사, 양주의 육지장사, 용인의 화운사, 광명의 금강정사, 강화의 전등사 등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다.

올해 템플스테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차별성이 없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찰별로 특성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전북 금산사가 '나는 쉬고 싶다'는 주제로 2박3일간 여는 템플스테이는 참선, 108배 등 기존의 프로그램 외에 섬마을 여행가 강제윤씨와 사찰음식전

산책하듯 느린 걸음으로 걷는 포행(布行)은 심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문가 선재 스님, 섬진강 시인 김용택씨 등을 패널로 초청해 '음악이 있는 이야기 시간'을 갖고, 다 함께 참여하는 '내비둬 콘서트'를 진행한다. 또 지리산 화엄사와 천은사, 도림사가 함께하는 '3사3색 템플스테이'에서는 야생녹차밭 포행(걸으며 하는 수행), 탁족, 반석위의 달맞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육지장사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을 위해 '스트레스, 비만 해소를 위한 선차단식'을 실시한다. 이 단식 프로그램에선 명상 요가와 함께 옥돌 보행명상, 쑥뜸 등을 하게 된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전남 순천의 '선암사 여름불교학교'에선 조별 연극, '스님과 함께하는 축구', 담력 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도 열린다. 대구 동화사는 8월 27일 개막하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육상 선수들에게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연계해 선수들이 동화사에서 당일 코스로 사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템플라이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절에서 숙박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예불과 명상, 다도, 108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불교에 템플스테이가 있다면 가톨릭에는 영성수련회인 피정이 있다. 가톨릭에서도 침묵과 묵상 속에서 심신을 쉬게 하고 자신을 성찰하려는 피정 인구가 매년 크게 늘면서 2005년 88곳이었던 '피정의 집'이 올해 1백34곳으로 크게 늘었다. 휴가철 피정 프로그램도 6년 새 3배나 늘었다.

피정의 집에선 명상과 비슷한 향심기도를 비롯해 이냐시오 영신수련과 '렉시오 디비나'(성독·聖讀) 등의 수도 피정에서부터 청년 신자들을 위한 수도생활 체험 피정, 피정을 통해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간 화합을 다지는 가족 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휴가철 '피정의 집' 1백34곳으로 늘어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의 김인순 수녀는 "매년 가족 피정에 20퍼센트 정도의 비신자 가정이 참석하는데 가톨릭 신앙을 토대로 하면서도 가족 간 대화와 행복을 지향하기 때문에 비신자들도 금세 적응한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와 피정 비용은 숙식비를 포함해 대부분 1박2일에 3만~5만원 정도여서 개별적으로 숙박을 해결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저렴하다. 더구나 산사와 수도원에서 자연건강식으로 식사하며 영혼의 양식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일 것이다. G

글 · 조현 (한겨레 종교전문기자)

문의 · 템플스테이 www.templestay.com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www.cbck.or.kr

참을 수 없는 어깨통증 간단한 동작으로 푼다

O 어깨통증. 당해본 사람만 안다고 하는 극도의 아픔이다. 오십견이라는 이름으로 중년으로 접어든 사람들, 특히 가정주부들이 고통을 호소하곤 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어깨통증에 많이 시달린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무거운 책가방과 씨름하고, 하루종일 경직된 자세로 공부해야 하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나면 어깨가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굳어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게다가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깨통증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태극권의 핵심 중 하나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상체를 움직여주는 것. 팔에 힘을 주지 않고 어깨관절을 크게 움직임으로써 경직된 어깨를 풀어주고, 어깨관절의 주변 근육을 만들어줌으로써 힘도 생기게 하는 효과가 있는 동작을 따라해 보자. 늘 구부린 듯 서 있던 자세에서 탈출해 당당한 모습을 되찾아 보자. 서로 마주보며 부부가 함께하는 것도 재미있다. **G**

수영하듯 앞뒤로 팔 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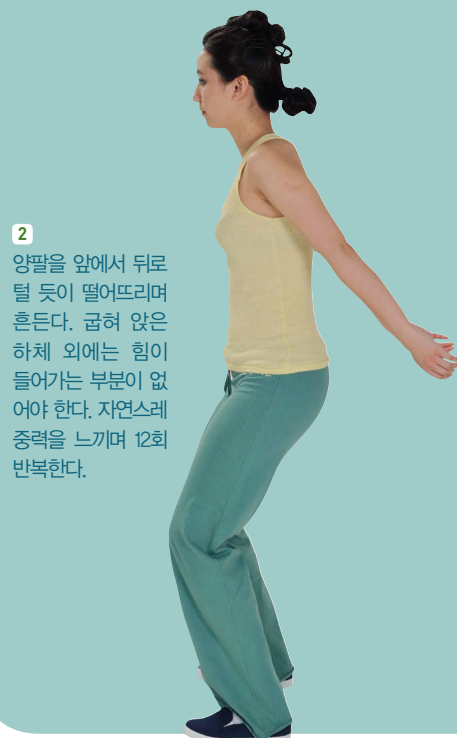
태극권의 몸 풀기 동작인 건신12단금 중 '순역교굉서근락(어깨근육풀어주기)' 동작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영의 스트로크와 같은 형태로 어깻죽지를 기준으로 팔을 회전하는데,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팔뚝이 느껴질 만큼 크게 원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태극권의 동작이 그렇듯, 상체와 팔에 힘을 주지 말아야 한다.

1 두 발을 모으고 선 자세에서 양팔을 어깨높이로 들어올린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에서 먼저 왼손을 밑으로 내리며 뒤로 돌린다.

2 앞의 동작에 이어 왼손은 뒤에서 위로, 앞으로, 밑으로 큰 원을 그리며 돌리고 오른손은 앞에서 밑으로, 뒤로, 위로 큰 원을 그리며 돌리는데 끊어지지 않도록 연이어 12번을 돌린다. 12회를 다 돌리고 나면 반대방향으로 12회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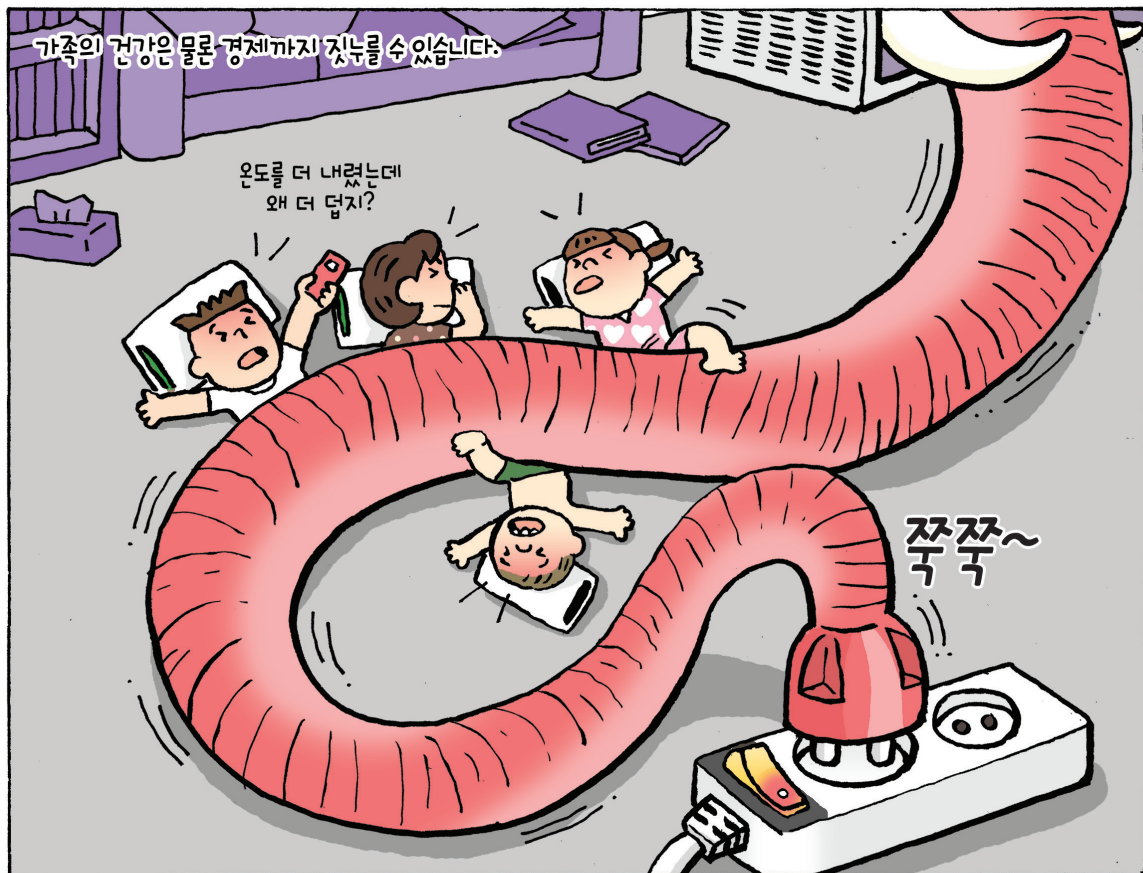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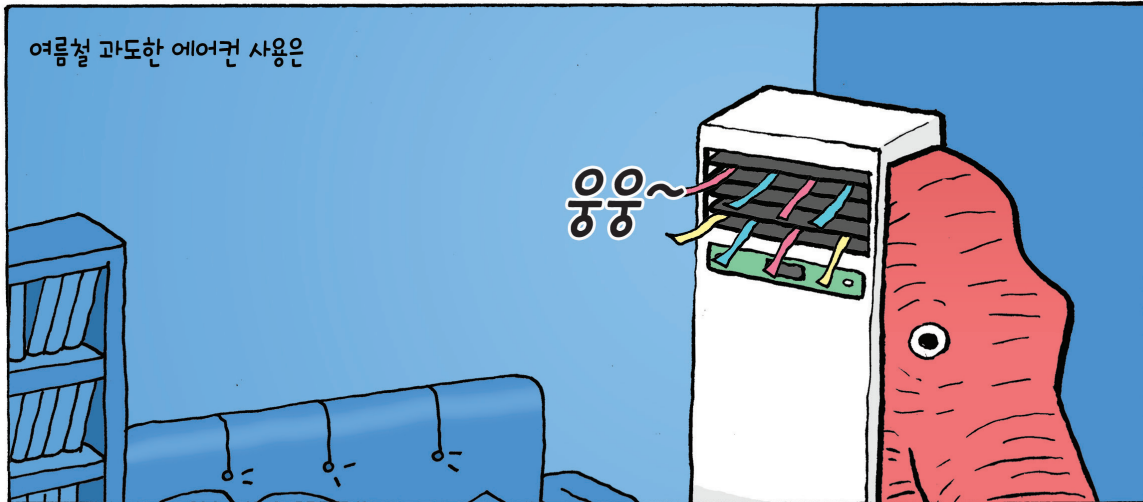
하나둘 하나둘 스키 타듯 팔 흔들기

누구나 한번 보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어깨를 시원하게 할 수 있다. 탄탄하게 구부린 하체와 편안하게 힘을 뺀 상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팔이 핵심이다. 어깨가 편안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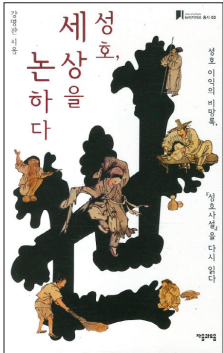
1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려 11자로 딛고 무릎을 약간 굽혀 앉는다. 양팔은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하여 어깨높이로 들어올린다. 이때 팔에 힘을 주지 말고 어깨의 근육을 이용해 들어올리고 손끝도 편안히 늘어뜨린다.

2 양팔을 앞에서 뒤로 털 듯이 떨어뜨리며 흔든다. 굽혀 앉은 하체 외에는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자연스레 중력을 느끼며 12회 반복한다.

자료 및 사진 〈30분 태극권〉 동아티에디

과유불급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실내외 온도 차는 5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성호, 세상을 논하다〉

公正, 조선후기의 화두?

강명관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 1만7천9백원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인 저자가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읽으면서 느낀 바를 오늘의 세상사에 빗대 쓴 글을 엮었다. 〈성호사설〉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李瀷)이 책을 읽거나 남에게 들은 바를 바탕으로 '손 가는 대로 기록한 것'들을 모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은 성호의 생각을 읽는 것이기도 하고, 저자의 생각을 읽는 것이기도 하다. 성호 본인은 〈성호사설〉 서문에서 자신의 책을 '희필(戱筆)', 즉 '장난삼아 쓴 글'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책에 인용된 성호의 글 속에는 조선 후기의 사회모순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연민과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 강명관 교수는 "글을 읽어나갈 수록 나는 성호가 살던 조선 후기 사회가 아니라, 지금 세상을 다시 곱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성호는 말한다. "대저 정치가 밝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은 청렴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청렴하지 않은 것은 검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검소하지 못함은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조선 후기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닮았다"

성호는 소수 특권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벌열(閥閱)정치' 아래서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단한 현실을 맹렬히 고발한다. 그러면서 성호는 걸왕(桀王)의 폭정 아래서 신음하던 하(夏)나라 백성들이 "저 해가 언제나 없어질까? 나는 너와 함께 망해 버렸으면 좋겠구나"라고 절규하다가,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걸왕을 무너뜨리자 "이제 우리는 살아나려나 보다"라고 환호했던 얘기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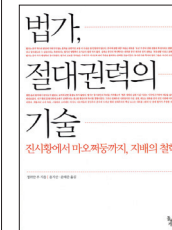
저자는 이 대목에서 "급격히 진행되는 양극화를 방치하면 국민은 극소수의 절대 부자와 절대 다수의 빈자로 나뉘고 나라는 이중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양극화와 이중국가 문제를 방치하면, 앞으로 타국의 침략을 호기로 여기는 자들이 나올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저자의 주장 가운데 무역이나 경제발전,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목이나 신자유주의를 조선 말기 양반의 학정에 비유한 대목 등은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성호와 저자가 던지는 '공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정'과 '퍼주기식 포퓰리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숙제일 것이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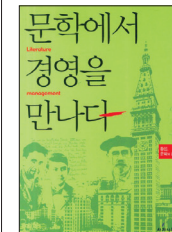
글 · 배진영 기자

새로 나온 책

법가, 절대 권력의 기술

정위안 푸 지음 | 돌베개 펴냄 · 1만2천원

한비자·상앙·이사 등에 의해 정립된 법가(法家)사상은 고대 중국의 주요 사상 중 하나였고,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유가(儒家)사상이 중국 역대 왕조의 공식이념이 되면서 법가사상은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다. 저자는 진시황에서 마오쩌둥에 이르는 중국 법가사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황제를 정점으로 한 역대 왕조의 정치체제는 물론 오늘날 중국 공산체제도 법가사상의 산물임을 밝힌다.

문학에서 경영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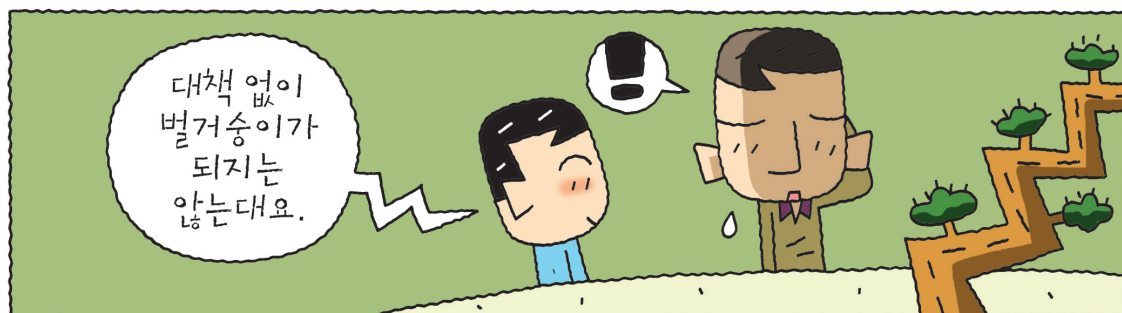
이재규 지음 | 사과나무 펴냄 · 1만5천원

피터 드러커 연구의 권위자인 저자가 문학작품을 통해 기업활동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재구성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포드의 대량생산체계에 대한 비판을,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1920년대 대량소비사회로 접어든 미국의 모순을, 카프카의 〈변신〉에서는 사무실에 갇혀 사는 월급쟁이의 고단한 삶을 읽어낸다. 우리가 익히 아는 소설이나 시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시대의 숨결을 느끼게 해 준다.

마이 코리안 델리

벤 라이더 하우 지음 | 정은문고 펴냄 · 1만5천원

백인 사위가 한국인 장모와 함께 뉴욕 한복판에서 편의점(델리)을 운영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경쾌한 필치로 엮었다. 유명 문예지 편집자로 일하다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던 저자는 개성 강한 장모와 함께 온갖 사람들이 찾아드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 가족의 의미, 문화충돌, 삶의 가치 등을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미국 영화계로부터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소나무가 늘 푸른 이유

글과 그림 · 최영순

나아갈 때 물러섬을 생각하면 진퇴양난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손을 댈 때에 손 뗄 것을 생각하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위태로움을 벗을 수 있다.
–<채근담>

공연 **헨젤과 그레텔** 그림형제(야콥 루드비히 칼, 빌헬름 칼)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이 인씨엠 오페라단(단장 이순민)의 정통적인 무대와 연출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오페라로 재탄생한다. 제2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에서 오케스트라 부문 '예술상'을 수상한 인씨엠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섬세한 선율로 무대의 감동을 더해준다. (사)인씨엠예술단의 산하단체 '이 삐꼴리 소년소녀합창단', 인씨엠 무용단이 함께 출연한다.

일시 8월 5~7일 **장소** 고양아람누리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02-2659-4100

축제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올해로 11회를 맞는 '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청소년이 문화작업자가 되는 최초의 '작업장 축제'로 막을 연다. 이번 축제는 25개의 문화작업장과 7개의 참여형 프로그램, 29개의 체험부스 등 '거대한 스튜디오'로 구성된다. '오늘 생긴 누구나의 예술' 콘셉트로 누구나, 즉석에서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오늘 생긴 퍼레이드', '방금 생긴 아카펠라 합창단'을 비롯해 10여 개의 워크숍, 공연 등이 개설된다. 국내외 청소년 1천여 명이 참여하여 남해 바다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여수 전역을 누비며 사진, 영상 등의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문화게릴라'식 활동을 펼친다.

일시 7월 30~31일 **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진남체육공원 일원 오동도(해양레포츠) **문의** 061-690-7672

전시 **투니 페스티벌** 올 여름방학, 투니버스에서 준비한 놀이 체험전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체험전으로 인기를 모았던 '투니 페스티벌'이 올해 스포츠 소재를 응용한 '놀이 체험전' 형식으로 개최된다. 전시에서는 야구, 축구, 피트니스 등 투니 스포츠 체험부스와 〈포켓몬스터〉, 〈메탈베이블레이드〉, 〈테일즈런너〉, 〈키넥트〉 등 인기 만화와 게임 속 소재를 활용한 놀이 체험전 부스로 구성된다. 피트니스 부스에서는 '근육 붙이기 점프', '묻지마 권투', '자전거로 역기 들기' 등 코믹하고 재미있는 체력 단련 시간이 마련된다.

일시 8월 28일까지 **장소** 양재동 aT 센터 **입장권** 1만5천원 **문의** 1544-5349

이가영화사

〈리오〉는 배우 송중기가 '블루' 역을, 박보영이 '주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정글·도시 오가는 환상 아이들을 삼바의 세계로

3D 애니메이션 〈리오〉

〈아이스 에이지〉 감독 카를로스 살다나의 색다른 코믹 어드벤처 〈리오〉가 극장가의 문을 두드린다. 〈리오〉는 전 세계 8천만을 사로잡은 스마트폰 게임의 최강자 '앵그리 버드 리오'의 원작영화다. 작은 스마트폰 액정에서 벗어나 커다란 스크린에서 펼치는 모험으로 유쾌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인간에게 완전히 길들고, 세상물정 모르던 희귀 마코 앵무새 '블루'가 '리오'라는 경이로운 세상과 만나며 일생일대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다.

뜨거운 삼바 축제의 열기로 가득한 리오는 '블루'에게 야생 그 자체. 애완용으로 키워져 날지 못하던 '블루'와 달리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야생의 새 '쥬엘'은 '블루'를 사사건건 비판, 좀처럼 어울리지 못한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둘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다.

브라질의 삼바 사운드 트랙과 3D 제작방법을 적용해 관객이 영화에 완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리오〉는 카를로스 살다나의 고향 '리우 데 자네이루'를 배경으로 한다. 카를로스 살다나의 섬세한 터치와 코믹하고 신선한 캐릭터 묘사로 '리우 데 자네이루'의 대규모 삼바 축제와 브라질 곳곳의 유려한 자연경관을 세밀하고 웅장하게 묘사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G

개봉일 7월 28일 **관람등급** 전체 관람가

어린이 눈높이 맞춘 플라잉 액션에 "와~"

가족 뮤지컬 〈피터팬〉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상상력과 모험심을 길러줄 가족뮤지컬 〈피터팬〉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무대에서는 SBS 〈붕어빵〉에 출연 중인 이정용과 아들 이믿음 군이 악당 후크 선장과 마이클로, 뮤지컬의 여왕 이정화가 여왕 역으로 출연하여 한층 더 매력적인 무대를 펼친다.

어느 날 밤, 잃어버렸던 자신의 그림자를 찾아 웬디의 방으로 들어오게 된 피터팬은 웬디와 그녀의 남동생 존, 마이클과 함께 환상의 섬 네버랜드로 떠나게 된다. 그곳엔 피터팬의 친구, 잃어버린 아이들과 용맹한 인디언 전사들 그리고 귀여운 질투쟁이 팅커벨이 있다. 하지만 피터팬의 목숨을 노리는 악당 후크가 친구들을 납치한다. 후크의 함정을 피해 모험을 펼친다.

"화면 속 평면 세상이 아닌 입체적 환상의 섬을 선물하겠다"는 제작사 팍스컬쳐는 세계 최고의 플라잉 기술을 가진 미국 ZFX사의 오리지널 플라잉 기술을 도입하여, 무대뿐 아니라 객석까지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입체적인 플라잉 액션을 선보인다. 체육관이라는 공연장의 특성을 살려 피터팬이 객석 뒤에서 무대로 날아오고, 리버스 앤 서클 플라잉까지 펼쳐 더욱 화려하다.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 아동극에서는 드문, 시시각각 변하는 무대로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G

글·김선영 인턴기자

일시 7월 23일, 8월 7일 **장소** 장충체육관특별무대(3호선 동대입구역) **관람료** 피터팬석 5만5천원 웬디석 4만5천원 팅커벨석 3만5천원 **문의** 02-3141-3025

팍스컬처

피터팬 역을 맡은 탤런트 박슬기가 플라잉 액션을 펼치고 있다.

공연소식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호암아트홀	8월 28일까지	02-744-2588
가족 뮤지컬 슈퍼영웅 뽀로로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양재동)	7월 31일까지	02-598-0284~5
모비딕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8월 20일까지	02-708-5001
셜록홈즈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 1관	9월 25일까지	02-588-7708
연극			
청소년 연극 쉬반의 신발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8월 10일까지	02-2234-4036
씬짜오몽실	소극장 모시는사람들	9월 18일까지	02-507-6487
우먼인블랙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9월 10일까지	02-747-2090
고령화 가족	정보소극장	8월 14일까지	070-8759-0730
콘서트			
2011김범수 콘서트 〈겟올라잇쇼〉 내가 범수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8월 20일	1544-1555
에어 서플라이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8월 16일	02-3143-5155
클래식			
나무챔버시즌2 〈나무챔버의 음악이야기 Serenade〉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8월 3~4일	02-3668-0007
다니엘 바렌보임 평화콘서트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8월 15일	1577-5266
오페라 / 무용			
국립현대무용단 〈수상한 파라다이스〉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8월 5~7일	02-3472-1420

7월 넷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7월 10일~7월 16일

	곡명	가수
1	바람났어(Feat. 박봄)	GG
2	Roly-Poly	티아라
3	압구정 날라리	처진 달팽이
4	Bubble Pop!	현아
5	말하는 대로	처진 달팽이
6	I Believe(신승훈)	김조한
7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바닷길
8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
9	흔들어 주세요	철싸
10	순정마초	파리돼지앵

출생의 비밀과 영웅의 평범함

영웅의 '약점'에 대중은 깊은 연민

영웅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점이 바로 출생의 비밀이다. 〈쿵푸 팬더2〉에서 주인공 팬더는 유약함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과거의 기억이 출몰하는 순간에 나타난다. 알고 보면 그는 난리통에 부모로부터 버려져 전혀 다른 종에 의해 입양됐던 것이다. 외모가 다른 아버지에 대한 의문은 1편에서부터 있었다. 그 의문을 2편에서 확실히 정리한다.

'쿵푸 팬더'가 보여주는 영웅상은 서민적 영웅상이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게 이 영화의 메시지다. 더 나아가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탐욕도 많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까지 드러낸다. 그런 멜로드라마를 잘 만들려고 흔하다 못해 식상하기까지 한 출생의 비밀을 집어넣는다.

〈해리 포터〉 시리즈 역시 마찬가지다. 마지막에 와서 평소 해리 포터에게 있었던 의문스러운 약점이 밝혀진다.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들려오는 내면의 환청과 환시들. 그것의 근원이 밝혀지고 부모가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그 비밀이 밝혀진다. 어떻게 보면 영웅은 불쌍하기까지 하다.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희롱당하다가 희생되는 인물이 영웅이기 때문이다.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던 일본영화 〈카게무샤(影武者)〉는 대리인생을 살다가 희생당하는 한 불쌍한 인간의 영웅적 삶을 그려낸다. 이러한 출생의 비밀과 복수 드라마의 원천은 아마 〈스타 워즈〉 시리즈일 것이다. 주인공 루크는 삼촌 부부에 의해 양육되는데 그 부모가 살해되면서 복수를 다짐하게 된다.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육되는 이야기는 〈쿵푸 팬더〉에서 그대로 차용됐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쩌면 3편에서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분이 악당에게 살해당함으로써 복수의 이를 가는 쿵푸 팬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가능하다. 어쨌든 〈스타 워즈〉 시리즈는 이후 루크의 친아버지 찾기로 달려간다. 항상 아버지는 찾는데 어머니는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이런 이야기의 원형이 신화에서 비롯됐고 신화에서는 흔히 아버지가 강조되기 때문이다.

평범한 영웅이 대중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웅은 실수나 허점, 탐욕이 많은 평범한 사람으로 그려진다. 더 나아가 영화속에서 영웅을 서민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전형적인 장치가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출생의 비밀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이용한 스토리 설정이다.

〈스타워즈〉의 주인공 루크는 힘들게 아버지를 찾는 데 성공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숙부를 죽인 원수였다.

〈쿵푸 팬더2〉 〈해리 포터〉 〈카게무샤〉 유사한 설정

루크가 찾은 아버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숙부를 죽인 자신의 원수였다. 이러한 설정 역시 신화에서 찾아진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러한 본능을 '친부살해(patricide)'라고 명명하였다. 아들이 아버지와 갈등을 빚는 것은 소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심리로 유아기, 청소년기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삼각관계에서 어머니를 사랑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갖는 신경증의 일종이다. 물론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본능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게 찾아 헤맨 원수가 또한 아버지였다는 설정은 멜로드라마의 뻔한 우연 중의 하나지만 영화 속에서 영웅을 서민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웅들은 서민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역시 신화적인 해석에 의하면 인류의 거창한 삶도 알고 보면 작은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가정과 친척의 범주라는 게 친근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신과 인간의 장대한 관계도 알고 보면 아버지, 자식의 작은 가정이야기인데 그것이 신화적으로 각색되다 보니 커진 것이다. 그래서 영웅도 알고 보면 평범한 서민이란 게 정답이 되고 마는 것이다. G

글 · 정재형 (동국대 교수 · 영화평론가)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대한민국에 상상력을 입혀라!"

공모분야

① **카툰·만평**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공정사회 구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② **스토리만화·웹툰** G20세대 (G20세대의 좌충우돌 이야기)

공모대상 중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

공모기간 2011년 6월 20일 ~ 8월 12일

시상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시상금 총 1,460만 원(대상 300만원)

제출자료 ①응모작품 ②응모지원서(작품당 1부, gonggam.korea.kr에서 다운로드)

- 컴퓨터로 작업할 경우 300dpi 이상으로 해야 하며, 반드시 프린트 출력물로 제출
- 출품 수 제한은 없으며, 개인 및 팀(4인 이하) 가능

제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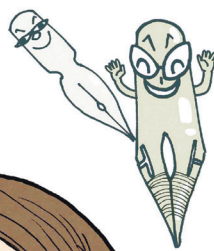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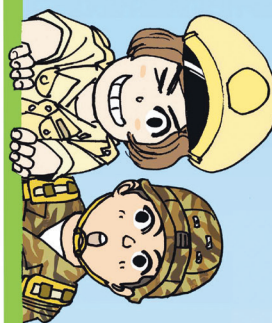
- **방문접수** : 2011년 8월 11~12일(10:00~16:00)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2011년 8월 12일) 소인 유효
- **접 수**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번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과 만화공모전 담당자

문 의 홍보콘텐츠과(02-3704-9987)

※ 자세한 내용은 공감 코리아(www.korea.kr),
위클리 공감(gonggam.korea.kr)에 있습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한국만화가협회

환경부

그린카드란?
신용카드의 기능과 함께,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 시 정부 · 지자체 · 기업 등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린을 꺼내세요

당신의 녹색실천, 그린카드가 기억합니다

그린카드는 녹색생활 실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절약 시 포인트 지급

녹색소비
환경마크 · 탄소라벨링제품 구매 시 포인트 지급

공공부문할인
휴양림 무료입장, 국립공원할인, 공연할인 등

신용카드의 기능
대중교통 이용특화 100~200 포인트 적립

그린카드 신청
'11년 7월 중순부터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 BC카드(우리은행, 하나SK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KB국민카드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카드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